

## 읽기 쉬운 신약성경

Language: 한국어 (Korean)

Provided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 **Copyright and Permission to Copy**

Taken from the Korean: Easy-to-Read Version © 2003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PDF generated on 2017-08-25 from source files dated 2017-08-25.

9bac292a-0755-530b-b49d-81aef79b3112

ISBN: 978-1-5313-1313-5

## 누가복음

### 누가가 예수의 생애에 대해 쓰다

**1**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로 엮어 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sup>2</sup> 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은 것과 꼭 같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란, 그 사건들을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sup>3</sup> 저 또한 그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을 잘 정리하여 글로 써서 각하게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sup>4</sup> 그것은, 각하께서 이미 배워 알고 계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 사가랴와 엘리사벳

<sup>5</sup> 헤롯왕<sup>†</sup>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는 아비아 갈래<sup>‡</sup>에 들어 있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 또한 아론<sup>¶</sup> 가문 출신이었다. <sup>6</sup>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의 명령과 규율을 흠 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sup>7</sup>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다.

<sup>8</sup> 아비아 갈래의 차례가 되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sup>9</sup> 제사장들은 언제나 성전에 들어가 향 제사<sup>§</sup>를 드릴 제사장을 제비로 뽑았는데, 이날은 사가랴가 뽑혔다. <sup>10</sup> 향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어, 많은 사람이 밖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sup>11</sup>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을 피우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sup>12</sup>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어졌다. <sup>13</sup>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가랴야. 주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sup>14</sup> 그 아들은 너를 무척 기쁘게 해 줄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sup>15</sup> 그 아기는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결코 포도주나 맥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sup>16</sup>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sup>17</sup> 그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는 부모들의 마음을 돌려 자식들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인들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sup>18</sup> 사가랴가 말하였다. “그 말씀이 정말인지 제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많은데 아내도 아주 나이가 많습니다.”

<sup>19</sup> 천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네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sup>20</sup> 잘 들어라. 이제 너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말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sup>21</sup> 밖에 있던 사람들은 사가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자 궁금히 여기고 있었다. <sup>22</sup> 드디어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가 계속 손짓만 하고 말을 하지

\* **1:1** 각하 말이나 글에서 왕이나 통치자에게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곤 하던 말.

† **1:5** 헤롯왕 기원전 40-4년 동안에 유대를 다스린 왕으로, 헤롯대왕이라고 불렸다.

‡ **1:5** 아비아 갈래 유대 사람 제사장들은 24갈래로 나뉘어 있었다(대상 24장).

¶ **1:5** 아론 모세의 형으로, 이스라엘의 첫번째 제사장이었다.

§ **1:9** 향 제사 특별한 나무의 어린잎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바쳤다.

\*\* **1:17** 엘리야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못하자, 사람들은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환상같은 것을 본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sup>23</sup> 그는 성전에서 섬기는 기간이 끝나자 집으로 돌아갔다.

<sup>24</sup> 얼마 뒤에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다섯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하였다. <sup>25</sup>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좋은 일을 해 주시다니!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운 여자라고 생각하더니, 주께서 내 부끄러움<sup>† †</sup>을 없애 주셨구나!”

### 처녀 마리아

<sup>26</sup>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에 사는 한 처녀에게 보내셨다. <sup>27</sup> 마리아라는 이름의 그 처녀는 다윗<sup>‡ ‡</sup> 가문 사람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sup>28</sup> 가브리엘이 처녀에게 말하였다. “크게 은혜를 입을 그대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그대와 함께하신다.”

<sup>29</sup>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이것이 대체 무슨 인사일까 곰곰이 생각하였다.

<sup>30</sup>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신다. <sup>31</sup> 잘 들어라. 너는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sup>32</sup> 아기는 아주 위대한 분이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sup>33</sup> 그는 야곱의 가문<sup>¶ ¶</sup>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sup>§ §</sup>

<sup>34</sup>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sup>35</sup>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네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힘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아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sup>36</sup> 보아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너무 늙었지만 아기를 가졌다.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아기를 가진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sup>37</sup> 하나님께는 못 하실 일이 없다.”

<sup>38</sup>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 마리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가다

<sup>39</sup> 마리아는 길 떠날 채비를 하여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가다. <sup>40</sup>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가랴의 집으로 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다. <sup>41</sup>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기가 마구 뛰었으며,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 <sup>42</sup>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대는 모든 여자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sup>43</sup>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렇게 좋은 일이 어찌 나 같은 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sup>44</sup> 그대의 인사를 듣는 순간 뱃속의 아기가 기뻐 뛰었습니다. <sup>45</sup> 당신은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으셨습니다.”

###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sup>46</sup>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 † **1:25 부끄러움** 유대 사람들은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였다.

‡ ‡ **1:27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 **1:33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킴.

§ § **1:33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47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48 그것은  
 주께서 이 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 받은 여인이라 부를 것입니다.  
 49 큰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내게 큰일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50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미칠 것입니다.  
 51 주께서 팔을 뻗어  
 당신의 힘을 보여 주셨으니,  
 마음속 깊이 교만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멀리 흠어 버리셨습니다.  
 52 왕들은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은 높여 주셨습니다.  
 53 굶주린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54 주께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그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55 그것은 우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그 뒤를 이을 후손들과 맺으신  
 영원한 약속에 따라 하신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 요한이 태어나다

57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58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다.

59 아기가 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려고 왔다. 그들은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아기의 이름도 사가랴로 지으려고 하였다. 60 그러자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61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62 그리고 아기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63 사가랴는 글 쓸 판을 달라고 하여 그 위에 이렇게 썼다. “아기 이름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64 그러자 곧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 그가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65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이 일은 유대 산골 지방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66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주의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 사가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67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예언하였다.

68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으니,  
그분을 찬양하여라.

69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종 다윗 가문에서  
능력 있는 구세주를 일으키셨다.

70 주께서는 오래 전에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71 우리를,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구해 주시리라 말씀하셨다.

72 그리하여 주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베푸셨다.

그리고 당신이 맺은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다.

73-75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놓여나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76 아기가,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다.  
너는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77 너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그분의 백성에게 가르칠 것이니,  
곧 그들이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78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자비가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우리 위에 비치게 하리니,  
79 그 빛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비치고  
또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80 아이는 자라 갔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설 때까지 광야에서 지냈다.

## 예수의 탄생

(마 1:18-25)

**2**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가 다스리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호적 등록† 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sup>2</sup> 그것이 첫번째 호적 등록이었다.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다. <sup>3</sup> 사람들은 모두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에 이름을 올렸다.

<sup>4</sup> 요셉도 살고 있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마을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고향으로 갔다. 그 마을의 이름은 베들레헴이었다. 요셉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다. <sup>5</sup>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이름을 등록하였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sup>6</sup>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다. <sup>7</sup> 마리아는 첫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 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 몇몇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다

<sup>8</sup> 가까운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밤새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 <sup>9</sup>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러쌌다. 그들은 겁이 났다. <sup>10</sup> 천사가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사람들이 모두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려 주러 왔다. <sup>11</sup> 오늘 다윗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주 그리스도이시다. <sup>12</sup>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그분을 알아보는 표기이다.”

<sup>13</sup>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천사의 무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sup>14</sup> “하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땅 위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sup>15</sup>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자, 목자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가서 주님께서 알려 주신 이 일을 직접 알아보자.”

<sup>16</sup> 목자들은 서둘러 길을 떠나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sup>17</sup> 그들은 아기를 본 뒤에, 이 아기에 관하여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일러 준 말을 널리 퍼뜨렸다. <sup>18</sup>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놀라워하였다. <sup>19</sup> 그러나 마리아는 들은 이야기를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으로 곰곰 되새겼다. <sup>20</sup>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들이 듣고 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두고 온 양 떼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듣고 본 것은 천사가 일러 준 그대로였다.

<sup>21</sup>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그 이름은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었다.

###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sup>22</sup> 모세의 법에 따라 정결 예식<sup>§</sup> 을 치러야 할 날이 되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주께 바치려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갔다. <sup>23</sup> 주의 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말리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는 주님께 바쳐야 한다.”\*\* <sup>24</sup> 그리고 주의 법에는 “산비둘기

\*2:1 아우구스투스 황제 예수께서 태어나실 무렵의 로마의 황제.

† 2:1 호적 등록 또는 ‘인구 조사’. 사람들의 수와 그들이 가진 재산을 조사하는 것.

‡ 2:7 구유 마소의 먹이를 담아 주는 나무 통.

¶ 2:7 여관에는…들 방이 또는 ‘손님방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들 자리’.

§ 2:22 정결 예식 모세의 법에 따르면, 유대 여자는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 깨끗해져야 한다(레 12:2-8).

\*\* 2:23 말리로…바쳐야 한다 출 13:2.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sup>† †</sup>라고도 쓰여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제물도 바치려고 성전으로 갔다.

###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다

<sup>25</sup>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려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었다. <sup>26</sup> 성령께서 이미 시므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주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sup>27</sup>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법에 정해진 예식을 치르려고 아기를 데리고 들어왔다. <sup>28</sup>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sup>29</sup> “주님, 이제 이 좋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화롭게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up>30</sup> 제가 주님의 구원<sup>‡ ‡</sup>을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sup>31</sup> 당신께서는 그 구원을

모든 민족이 보는 가운데 준비하셨습니다.

<sup>32</sup> 그 구원은 이방 민족에게는

당신의 길을 보여 주는 빛이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큰 영광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sup>33</sup>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관하여 하는 말을 듣고 놀라워하였다.

<sup>34</sup> 시므온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고,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sup>35</sup> 그것은 많은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날카로운 칼처럼 당신의 영혼을 꿰뚫을 것입니다.”

###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다

<sup>36</sup> 거기에는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다. 안나는 아셀 가문 사람 바누엘의 딸이었다. 안나는 나이가 아주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하여 남편과 칠 년을 살고 <sup>37</sup> 남편을 잃었다. 안나는 여든네 살이 되도록 홀어미로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sup>38</sup> 안나는 아기와 부모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해방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 요셉과 마리아 집으로 돌아가다

<sup>39</sup> 아기의 부모는 주의 법에 정해진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에 있는 그들의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sup>40</sup> 아기는 자라며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함께하였다.

<sup>† †</sup> **2:24 산비둘기…바쳐야 한다** 레 12:8. 이것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었다.

<sup>‡ ‡</sup> **2:30 구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다.

### 소년 시절의 예수

<sup>41</sup>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갔다. <sup>42</sup> 예수께서 열두 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늘 해 오던 대로 예루살렘에 갔다. <sup>43</sup> 명절 기간이 끝나고 예수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sup>44</sup> 그들은 예수가 같이 간 사람들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였다. 그들은 하루가 지난 뒤에야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하였다. <sup>45</sup> 그러나 그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sup>46</sup> 그들은 사흘 뒤에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다. 예수께서는 선생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다. <sup>47</sup> 그가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선생들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하는 것에 놀랐다. <sup>48</sup> 그의 부모는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야야, 어찌하여 네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나는 몹시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

<sup>49</sup>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sup>50</sup>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sup>51</sup> 예수께서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며 살았다. 예수의 어머니는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새겨 두었다. <sup>52</sup> 예수께서는 슬기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인정을 받았다.

###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위해 길을 준비하다

(마 3:1-12; 막 1:1-8; 요 1:19-28)

**3** 로마 황제 디베리가 다스린 지 십오 년째 되던 해였다. 황제 밑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본디오 빌라도: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헤롯 <sup>¶</sup>: 갈릴리 지방의 영주

헤롯의 동생 빌립: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영주

루사니아: 아빌레네 지방의 영주

<sup>2</sup> 대제사장 <sup>§</sup>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살고 있던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sup>3</sup> 그는 요단 강\* 가까운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다. <sup>4</sup>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기록한 책에 쓰인 그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위하여 길을 곧게 하여라.

<sup>5</sup>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라.

굽은 길은 곧게 만들고

울퉁불퉁한 길은 평평하게 만들어라.

<sup>6</sup>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sup>†</sup>

<sup>¶</sup> **3:1 헤롯** 헤롯 안티파스. 헤롯대왕의 아들.

<sup>§</sup> **3:2 대제사장** 유대 사람들의 가장 높은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 **3:3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sup>†</sup> **3:6** 사 40:3-5.



<sup>7</sup>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앞으로 닥칠 큰 화를 피하라고 알려 주더냐? <sup>8</sup>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였으면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라. 그리고 속으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sup>9</sup> 벌써 하나님의 도끼가 뿌리를 찍으려고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태울 실 것이다.”

<sup>10</sup>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sup>11</sup> 요한이 대답하였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한 벌을 나누어 주어라. 먹은 것이 있는 사람도 나누어 먹어라.”

<sup>12</sup> 세무원 <sup>‡</sup>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sup>13</sup> 요한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정해진 세금만 받아라.”

<sup>14</sup> 그 다음으로 몇몇 군인들이 물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남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억지로 돈을 빼앗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sup>15</sup>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들 속으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였다.

<sup>16</sup>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었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sup>17</sup> 그분은 키 <sup>¶</sup>를 들고 타작마당에 서 계신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넣고, 켄데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실 것이다.” <sup>18</sup> 이렇게 요한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다. <sup>19</sup> 요한은 갈릴리 지방의 영주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일과, 많은 나쁜 짓을 한 것을 꾸짖었다. <sup>20</sup> 헤롯은 그런 나쁜 짓을 하고도 또 나쁜 짓을 한 가지 더 하였다. 그것은 요한을 옥에 가둔 일이었다.

###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마 3:13-17; 막 1:9-11)

<sup>21</sup> 모든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sup>22</sup>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께 내려오셨다. 하늘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한다.”

### 예수의 족보

(마 1:1-17)

<sup>23</sup>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는 서른 살쯤 되셨을 때였다. 사람들은 그를 요셉의 아들로 여기고 있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고,

<sup>24</sup> 엘리는 맛닷의 아들이고,

맛닷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안나의 아들이고,

안나는 요셉의 아들이고,

<sup>25</sup> 요셉은 맛다디아의 아들이고,

<sup>‡</sup> **3:12** 세무원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했다.

<sup>¶</sup> **3:17** 키 곡식 따위를 까부르는 그릇.

맛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고,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이고,  
 나훔은 에슬리의 아들이고,  
 에슬리는 낙개의 아들이고,  
 26 낙개는 마앗의 아들이고,  
 마앗은 맛다디아의 아들이고,  
 맛다디아는 서머인의 아들이고,  
 서머인은 요섹의 아들이고,  
 요섹은 요다의 아들이고,  
 27 요다는 요아난의 아들이고,  
 요아난은 레사의 아들이고,  
 레사는 스룹바벨의 아들이고,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고,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이고,  
 28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앳디의 아들이고,  
 앳디는 고삼의 아들이고,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이고,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이고,  
 에르는 예수의 아들이고,  
 29 예수는 엘리에서의 아들이고,  
 엘리에서는 요림의 아들이고,  
 요림은 맛닷의 아들이고,  
 맛닷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이고,  
 30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이고,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남의 아들이고,  
 요남은 엘리야김의 아들이고,  
 31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고,  
 멜레아는 멘나의 아들이고,  
 멘나는 맛다다의 아들이고,  
 맛다다는 나단의 아들이고,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고,  
 32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고,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고,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고,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고,  
 33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고,  
 아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이고,  
 아드민은 아나의 아들이고,  
 아나는 헤스론의 아들이고,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고,  
 34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고,  
 데라는 나홀의 아들이고,  
 35 나홀은 스룩의 아들이고,  
 스룩은 르우의 아들이고,  
 르우는 벨렉의 아들이고,  
 벨렉은 헤버의 아들이고,  
 헤버는 살라의 아들이고,  
 36 살라는 가이난의 아들이고,  
 가이난은 아박삿의 아들이고,  
 아박삿은 셈의 아들이고,  
 셈은 노아의 아들이고,  
 노아는 레멕의 아들이고,  
 37 레멕은 므두셀라의 아들이고,  
 므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고,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고,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이고  
 마할랄렐은 가이난의 아들이고,  
 38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 악마에게 시험당하시다

(마 4:1-11; 막 1:12-13)

**4**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요단 강<sup>§</sup>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sup>2</sup>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동안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날 때쯤 몹시 배가 고프셨다.

<sup>3</sup>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하여라.”

<sup>4</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sup>\*\*</sup>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sup>† †</sup>

<sup>5</sup>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보여 주었다. <sup>6</sup> 그리고 말하였다. “저 나라들이 가진 힘과 영광을 다 네게 주겠다. 저 나라들은 내 것이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sup>7</sup>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sup>8</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네 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sup>‡ ‡</sup>

<sup>9</sup> 악마는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 놓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sup>10</sup>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sup>§</sup> 4:1 요단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sup>\*\*</sup> 4:4 성경 구약성경.

<sup>† †</sup> 4:4 신 8:3.

<sup>‡ ‡</sup> 4:8 신 6:13.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돌보게 하시리라.’<sup>¶¶</sup>

<sup>11</sup> 그리고 이런 말도 있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sup>§ §</sup>

<sup>12</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sup>\*</sup>

<sup>13</sup> 악마는 온갖 방법으로 예수를 시험해 본 뒤, 더 좋은 때를 노리며 떠나갔다.

### 갈릴리에서 일을 시작하시다

(마 4:12-17; 막 1:14-15)

<sup>14</sup>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sup>15</sup> 예수께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칭찬하였다.

### 고향 마을로 가시다

(마 13:53-58; 막 6:1-6)

<sup>16</sup>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가셨다. 어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다. <sup>17</sup> 예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sup>†</sup>가 쓴 예언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다음 말씀이 적힌 곳을 찾으셨다.

<sup>18</sup>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기름 부어 나를 택하셨다.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눈먼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보게 되고,

억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알리라 하신다.

<sup>19</sup>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해가 왔다고

널리 알리라 하신다.”<sup>‡</sup>

<sup>20</sup> 그리고 두루마리를 맡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께 쏠렸다. <sup>21</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sup>22</sup>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sup>23</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내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너희가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고향에서도 해 보이시오.’ 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줄 안다.”<sup>24</sup>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 4:10 시 91:11.

§ § 4:11 시 91:12.

\* 4:12 신 6:16.

† 4:17 이사야 기원전 742-701년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 4:19 사 61:1-2.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다. <sup>25</sup>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 엘리야<sup>¶</sup> 때에도 이스라엘에 흠어미가 많았다. 그때 삼 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에 큰 가뭄이 들었다. <sup>26</sup> 하나님께서는 많은 흠어미 가운데서 시돈 지방의 사렙다 마을에 있는 한 흠어미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 <sup>27</sup> 엘리사<sup>§</sup> 예언자 때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고쳐 주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고쳐 주셨다.”

<sup>28</sup> 이 말을 듣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났다. <sup>29</sup> 사람들은 일어나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 그리고 마을 아래 베히랑 끝으로 데려가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sup>30</sup>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 한가운데를 뚫고 나가 그곳을 떠나셨다.

### 악령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막 1:21-28)

<sup>31</sup>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마을로 가서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sup>32</sup>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sup>33</sup> 그때 회당에는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sup>34</sup> “아하! 나사렛 사람 예수시로군! 당신이 우리를 어쩔 셈이요? 우리를 없애러 오셨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오.” <sup>35</sup> 예수께서 악령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조용히 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그러자 귀신이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을 넘어뜨려 놓고 나갔으나, 그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sup>36</sup> 사람들이 놀라 서로 수군거렸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저 사람이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악령도 나가는구나!” <sup>37</sup>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 둘레의 모든 곳으로 퍼져 나갔다.

###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시다

(마 8:14-17; 막 1:29-34)

<sup>38</sup> 예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sup>\*\*</sup>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그 부인을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sup>39</sup>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부인은 곧 일어나 사람들의 시종을 듣기 시작하였다.

###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다

<sup>40</sup>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병자 하나하나에 손을 얹어 고쳐 주셨다. <sup>41</sup> 많은 사람 안에 들어 있던 귀신들도 나갔다. 귀신들은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다른 여러 마을에도 가시다

(막 1:35-39)

<sup>42</sup> 날이 밝아 예수께서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았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 만나자 자기들을 떠나지 마시라고 간청하였다. <sup>43</sup>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한다. 나는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sup>44</sup> 예수께서는 계속 유대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sup>¶</sup> 4:25 엘리야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sup>§</sup> 4:27 엘리사 엘리야의 뒤를 이은 예언자.

<sup>\*\*</sup> 4:38 시몬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따른다

(마 4:18-22; 막 1:16-20)

**5** 어느 날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고, 사람들은 그분 곁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sup>2</sup> 예수께서는 물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sup>3</sup> 예수께서 그 가운데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sup>†</sup>의 배였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배를 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대어 놓으라 하신 다음, 거기에 앉아 가르치셨다.

<sup>4</sup>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sup>5</sup>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sup>6</sup> 그들이 그물을 던지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였다. <sup>7</sup> 그들은 손짓으로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그들이 와서 두 배를 가득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sup>8</sup>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sup>9</sup> 시몬과, 시몬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서 놀랐던 것이다. <sup>10</sup>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 두 사람은 시몬과 같이 일하는 어부들이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sup>11</sup> 그들은 배를 호숫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 피부병 걸린 사람을 고쳐 주시다

(마 8:1-4; 막 1:40-45)

<sup>12</sup>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계실 때였다. 그 마을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빌었다. “주께서 저를 고쳐 주려 하시면, 제가 깨끗이 나올 것입니다.”

<sup>13</sup>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너를 고쳐 주고 싶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 사람의 피부병이 금세 나았다. <sup>14</sup>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sup>††</sup>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쳐 네 몸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여라.”

<sup>15</sup> 그러나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더 멀리 퍼져 나갔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몰려왔다. <sup>16</sup>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주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 중풍병 환자를 고쳐 주시다

(마 9:1-8; 눅 2:1-12)

<sup>17</sup> 어느 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 자리에는 바리새파사람들과 율법 선생들도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와 유대의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 주고 계셨다. <sup>18</sup>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들것에 뉘어 데리고 왔다. 그들은 아픈 사람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 앞에 누이려고 하였다. <sup>19</sup>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sup>†</sup> **5:3** 시몬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sup>††</sup> **5:14** 제사장에게 보이고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오면, 모세의 법에 따라 제사장의 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예물을 바쳐야 했다 (레 14:2-32).

그들은 지붕 ¶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아픈 사람을 들것에 누인 채, 사람들 한가운데에 계신 예수 앞으로 내려 보냈다. <sup>20</sup>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sup>21</sup>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도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sup>22</sup> 예수께서 그들의 그런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 <sup>23</sup> ‘네 죄가 용서되었다.’ 라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라.’ 라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하기 쉬우냐? <sup>24</sup> 사람의 아들에게는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sup>25</sup> 그러자 병자는 사람들 앞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리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sup>26</sup>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두려움에 차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았다!”

### 레위(마태)가 예수를 따르다

(마 9:9-13; 막 2:13-17)

<sup>27</sup> 이 일이 있고 난 뒤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무원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sup>28</sup> 레위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를 따라나섰다.

<sup>29</sup>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많은 세무원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먹고 있었다. <sup>30</sup>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은 이것이 못마땅하여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무원들 § § 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거요?”

<sup>31</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sup>32</sup>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 여느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신 예수

(마 9:14-17; 막 2:18-22)

<sup>33</sup>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바리새파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날마다 먹고 마십니다.”

<sup>34</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결혼 잔치에서 신랑이 있는 동안에 신랑의 친구들에게 금식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sup>35</sup>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할 것이다.”

<sup>36</sup> 그리고 이 비유 † 를 들려주셨다. “새 옷을 찢어 내어 헌 옷에 대고 깎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버리고, 새 옷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기 때문이다. <sup>37</sup>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부대 ‡ 에 부어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는 못쓰게 되기 때문이다. <sup>38</sup>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 **5:19 지붕** 팔레스틴 지방의 지붕은 대개 평평하였고, 집 밖에 있는 층계를 통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 § **5:30 세무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하였다.

\* **5:30 죄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직업상으로는 종교적으로 모세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모두 죄인으로 여겼다.

† **5:36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5:37 포도주 부대** 포도주를 넣어 두려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

<sup>39</sup>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말한다.”

###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 12:1-8; 막 2:23-28)

**6**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뽑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sup>2</sup>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까?”

<sup>3</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읽은 적이 없느냐? <sup>4</sup> 다윗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린 빵을 먹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간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다.”

<sup>5</sup>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 안식일에 오른손 마비된 사람을 고치시다

(마 12:9-14; 막 3:1-6)

<sup>6</sup> 또 다른 안식일에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다. <sup>7</sup>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면, 그 일을 트집 잡아 예수를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sup>8</sup> 예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모두가 볼 수 있게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섰다. <sup>9</sup> 예수께서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모세의 법에 맞느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냐?” <sup>10</sup>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을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자 손이 말짱하게 나왔다. <sup>11</sup>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였다.

###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

(마 10:1-4; 막 3:13-19)

<sup>12</sup>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sup>13</sup>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가운데서 열두 사람을 뽑아서 사도라고 부르셨다. <sup>14</sup> 그 열두 사도는,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신 시몬과, 시몬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sup>15</sup> 마태,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열심쟁이라고 불린 시몬, <sup>16</sup>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리옷 유다이다. 이 가리옷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 되었다.

###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다

(마 4:23-25; 5:1-12)

<sup>17</sup>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멈추셨다. 그곳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몬의 해안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sup>18</sup>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악령<sup>¶</sup>에게 시달림을 받던 사람들도 병이 나왔다. <sup>19</sup>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께로부터 모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힘이 나왔기 때문이다.

<sup>20</sup>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sup>21</sup>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sup>¶</sup> 6:18 악령 또는 ‘귀신’. 악마에게서 나온 악한 영.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sup>22</sup>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따른다고 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따돌리고 모욕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sup>23</sup> 그때에 너희는 기뻐 뛰어들라.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이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못된 짓을 했었다.

<sup>24</sup> 그러나 너희 부자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이미 너희가 받을 위안을 다 받았기 때문이다.

<sup>25</sup> 지금 배부른 너희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굶주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sup>26</sup>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의 조상도

거짓 예언자<sup>5</sup> 들을 칭찬했었다.

### 원수를 사랑하라

(마 5:38-48; 7:12)

<sup>27</sup>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sup>28</sup>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너희를 악하게 대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sup>29</sup> 누가 한 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내주어라. 누가 네 겹옷을 가져가거든, 그에게 네 속옷을 거절하지 말아라. <sup>30</sup> 누구든지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어라. 누가 너희 것을 가져가면 돌려 달라고 하지 말아라. <sup>31</sup>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해 주어라. <sup>32</sup>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sup>33</sup> 너희에게 잘해 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 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그런 일은 죄인들도 한다. <sup>34</sup>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꾸어 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제 친구들에게 꾸어 준다. <sup>35</sup>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 주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잘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sup>36</sup>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 먼저 너희 자신을 보라

(마 7:1-5)

<sup>37</sup>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sup>38</sup>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후하게 주실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담아 네 옷자락에 부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sup>5</sup> 6:26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는 사람.

<sup>39</sup> 예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안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sup>40</sup> 스승보다 높은 제자는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충분히 훈련을 받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sup>41</sup> 어찌하여 너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 있는 먼지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든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sup>42</sup> 네 눈에 들어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친구여, 자네 눈에 있는 먼지를 꺼내 주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 들어 있는 들보를 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맑아져서 다른 사람의 눈에 든 먼지를 꺼내 줄 수 있을 것이다.

###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마 7:17-20; 12:34-35)

<sup>43</sup>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sup>44</sup>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가시덤불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짙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sup>45</sup>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 둔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 둔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넘쳐흐르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 두 종류의 사람들

(마 7:24-27)

<sup>46</sup>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주님, 주님.’ 하면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sup>47</sup>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겠다. <sup>48</sup> 그런 사람은 집을 튼튼하게 짓는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는다. 홍수가 나고 강물이 집을 덮쳐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집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이다. <sup>49</sup> 내 말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기초도 놓지 않은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강물이 덮치면 집은 금방 무너져 완전히 부서지고 만다.”

### 백인대장의 종을 고쳐 주시다

(마 8:5-13; 요 4:43-54)

**7**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다 하신 뒤에 가버나움<sup>††</sup>으로 가셨다. <sup>2</sup> 거기에 어떤 백인대장<sup>‡‡</sup>이 있었다. 그 백인대장의 종 한 사람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그 종은 백인대장이 매우 아끼는 종이였다. <sup>3</sup> 백인대장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유대 사람 장로<sup>¶¶</sup> 몇 사람을 보냈다.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살려 달라고 청하려는 것이었다. <sup>4</sup> 장로들은 예수께 와서 간절히 청하였다. “백인대장은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sup>5</sup>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sup>6</sup> 그래서 예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셨다. 그 집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에, 백인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말씀드리게 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수고스럽게 일부러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sup>7</sup> 그래서 저는 주님을 뵈러 갈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올 것입니다. <sup>8</sup> 제 위로는 상관들이 있고 제 아래로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하에게 ‘가라!’ 고 하면 갑니다. 그리고 저 부하에게 ‘오라!’ 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고 하면 합니다.”

\*\*6:41 들보 건물에서 간과 간 사이의 두 기둥을 건너지르는 큰 나무.

††7:1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다.

‡‡7:2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군대의 장교.

¶¶7:3 장로 나이가 지긋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sup>9</sup>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셨다. 예수께서 뒤따라오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르는데, 이스라엘<sup>§ §</sup>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sup>10</sup> 그 친구들이 백인대장의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은 벌써 나와 있었다.

###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다

<sup>11</sup> 조금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다. 예수의 제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 <sup>12</sup>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 장례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홀어미의 외아들이었다. 그 고을의 많은 사람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었다. <sup>13</sup> 주께서는 그 어머니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sup>14</sup> 예수께서 상여로 다가가 손을 대시자, 상여를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죽은 젊은이를 향해 말씀하셨다. “젊은이여, 일어나거라!” <sup>15</sup> 그러자 죽었던 젊은이가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 젊은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sup>16</sup>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에게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우려고 오셨다!”

<sup>17</sup> 예수에 대한 소식은 유대 지방과 그 둘레에 있는 모든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 여쭙다

(마 11:2-19)

<sup>18</sup>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이야기하였다.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불러, <sup>19</sup> 주께 가서 이렇게 여쭙어 보라고 하였다.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sup>20</sup>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선생님께 여쭙어 보라고 저희를 보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sup>21</sup>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해 주셨다. <sup>22</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여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환자들이 나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다. <sup>23</sup> 내가 하는 이런 일 때문에 나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sup>24</sup>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었느냐? <sup>25</sup>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었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었느냐? 좋은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궁전에 있다. <sup>26</sup>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갔었느냐? 예언자를 보러 갔었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sup>27</sup> 성경에는 요한을 두고 이렇게 쓰여 있다.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심부름꾼을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닦을 것이다.’<sup>†</sup>

<sup>28</sup>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사람도 요한보다 위대하다.

§ § 7:9 이스라엘 유대 나라 또는 그 백성.

\* 7:24 갈대 물가에 자라는 키가 큰 풀. 예수께서는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 7:27 말 3:1.

29 (요한의 선포를 들은 모든 사람은, 심지어 세무원<sup>‡</sup>들까지도 하나님의 길이 옳다고 인정하였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30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세워 놓으신 계획을 거부하였다.)

31 그러나 내가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이 사람들이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 32 이 세대 사람은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과 같다. 한 때의 아이들이 다른 때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슬픈 장송곡을 노래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33 너희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밥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자, ‘요한은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하였다. 34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아라,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요 세무원들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라고 말한다. 35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의해서 증명된다.”

### 바리새파 사람 시몬

36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음식을 대접하려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상 앞에 앉으셨다. 37 그 마을에는 죄 많은 삶을 살아온 여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초대된 것을 알고는 향유<sup>¶</sup>가 담긴 옥합<sup>§</sup>을 가지고 그 집으로 갔다. 38 여자는 예수의 뒤로 가서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다. 여자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고,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다. 39 예수를 청했던 바리새파 사람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댄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40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41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이 둘 있었다.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sup>\*\*</sup>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42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돈놀이꾼이 두 사람의 빚을 없는 것으로 해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은 빚을 면제 받은 사람이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은 말이다.” 44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45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내 발에 입 맞추었다. 46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 주었다. 47 그러므로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다. 이 여자가 이렇게 큰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48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는 용서받았다.”

<sup>‡</sup> 7:29 세무원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했다.

<sup>¶</sup> 7:37 향유 상처 난 피부나 장례를 위해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던 약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기름.

<sup>§</sup> 7:37 옥합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

<sup>\*\*</sup> 7:41 데나리온 고대 로마의은돈.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sup>49</sup> 그러자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하기까지 하는가?”

<sup>50</sup>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들

**8**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열두 사도들도 예수와 함께 다녔다. <sup>2</sup> 그리고 예수께서 악령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주신 여자들도 따라다녔다. 그들은 일곱 귀신에게 시달리던 막달라 여자라고 부르는 마리아와 <sup>3</sup> 헤롯 집안의 청지기인 <sup>† †</sup>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많은 여자들이었다. 이 여자들은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와 그분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대주었다.

### 씨 뿌리는 비유

(마 13:1-17; 막 4:1-12)

<sup>4</sup> 많은 사람이 여러 고을에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sup>5</sup> “어떤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에게 쪼아 먹히기도 하였다. <sup>6</sup>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다가 물이 없으므로 말라 죽었다. <sup>7</sup>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져서,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그 숨통을 막아 버렸다. <sup>8</sup>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것은 잘 자라서 백 배의 곡식을 맺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sup>9</sup> 제자들은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예수께 여쭙었다.

<sup>10</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해 준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하여도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여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sup>‡ ‡</sup>

###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다

(마 13:18-23; 막 4:13-20)

<sup>11</sup> 이 비유는 이런 뜻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sup>12</sup>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고 나면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sup>13</sup> 바위 위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여 잠깐 동안은 믿지만 시련의 때가 닥치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sup>14</sup>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이나 재산이나 인생의 즐거움에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어, 잘 익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sup>15</sup>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며 끝까지 참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sup>† †</sup> **8:3 청지기** 지위가 높은 사람의 집이나 부잣집에서 집안일을 맡아 보고 심부름을 하던 사람.

<sup>‡ ‡</sup> **8:10 사 6:9.**

## 가지고 있는 이해력을 써라

(막 4:21-25)

16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모두 그 빛을 볼 수 있다. 17 감추어진 것은 모두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것은 모두 알려지거나 밝혀질 것이다. 18 그러니 정신 차려서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의 가족이다

(마 12:46-50; 막 3:31-35)

19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왔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20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하십니다.”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다.”

## 제자들이 예수의 능력을 보다

(마 8:23-27; 막 4:35-41)

22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다. 23 그들이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호수 쪽으로 거센 바람이 불고 물살이 일자, 배에 물이 차서 가라앉게 되었다. 24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바람이 멎고 호수가 잔잔해졌다. 2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서로에게 말하였다. “이분은 누구이신가? 그가 바람과 물에게 명령을 내리시니, 바람도 물도 그의 말씀을 따르는구나!”

## 귀신 들린 사람

(마 8:28-34; 막 5:1-20)

26 그들은 배를 몰아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닿았다. 27 예수께서 물에 오르시니, 그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왔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 가운데서 살았다. 28 그는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높고도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29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여러 번 귀신에게 붙들려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의 손발을 쇠사슬로 묶고 지켰으나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어 버렸다. 그러고는 귀신에게 몰려서 외딴 곳을 헤매고 다녔다.)

30 예수께서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야?”

그 사람이 “레기온 <sup>¶</sup>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 안에 여러 귀신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31 귀신들은 예수께 자기들을 깊은 구렁텅이 <sup>§</sup>로 되돌려 보내지 말아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32 마침 그 언덕 위에는 큰 돼지 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자기들을 그 돼지들 안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빌자 예수께서 허락하셨다. 33 그러자 귀신들은 그

¶ **8:30 레기온** 약 6,000명 정도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의 한 사단.

§ **8:31 깊은 구렁텅이** 또는 ‘지옥’. 악령들이 갇혀서 벌 받는 곳.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돼지들은 언덕 아래 호수로 달려 내려가서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sup>34</sup>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달아나, 읍과 그 둘레의 농촌 마을로 다니면서 그 일을 이야기하였다. <sup>35</sup>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보러 왔다. 사람들은 예수와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은 제 정신으로 돌아와 옷을 입고 멀쩡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sup>36</sup> 그 일을 처음부터 본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쳐 주셨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sup>37</sup> 그러자 거라사 지역의 모든 주민은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께 그곳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떠나시려는데, <sup>38</sup>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께 자기도 함께 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sup>39</sup>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해 주신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온 읍내에 두루 알렸다.

###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고, 병든 여자를 고치시다

(마 9:18-26; 막 5:21-43)

<sup>40</sup>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였다.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sup>41</sup>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 왔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다. 야이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함께 가지자고 애원하였다. <sup>42</sup> 야이로에게는 열두 살쯤 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밀치며 쫓아갔다. <sup>43</sup> 그 가운데에는 십이 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으로 앓고 있는 여자도 있었다. 그 여자는 의사를 찾아다니느라 있는 돈을 다 써 버렸지만<sup>†</sup>, 어떤 의사도 고쳐 주지 못하였다. <sup>44</sup>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 순간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 <sup>45</sup>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이 모두 자기는 아니라고 하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을 둘러싸고 밀치고 있지 않습니까?”

<sup>46</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 나간 것을 내가 안다.” <sup>47</sup> 여자는 더는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예수 앞에 엎드렸다. 여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 까닭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예수께 손을 대자 자기의 병이 곧 나은 것도 말씀드렸다. <sup>48</sup>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가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다. 평안히 가거라.”

<sup>49</sup>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왔다. 그는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는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sup>50</sup>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고 그저 믿어라! 네 딸이 나올 것이다.”

<sup>51</sup> 예수께서 그 집에 이르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셨다. <sup>52</sup>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울며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sup>53</sup>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sup>54</sup>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야야, 일어나거라!” <sup>55</sup> 그러자 아이의 영혼이 돌아왔고, 아이는 곧 일어섰다.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sup>56</sup> 아이의 부모는 깜짝 놀랐다. 예수께서는 부모에게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 8:41 회당장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회의를 하던 회당의 책임자.

† 8:43 라 그 여자는…돈을 다 써버렸다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 열두 사도를 전도 여행에 보내시다

(마 10:5-15; 막 6:7-13)

**9** 예수께서 열두 사도를 불러모으시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 <sup>2</sup> 그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쳐 주라고 그들을 보냈다. <sup>3</sup> 예수께서는 이렇게 일러 보내셨다. “길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음식과 돈도 가지지 말고, 갈아입을 여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sup>4</sup> 한 집에 들어가면 그 고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sup>5</sup> 그 고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 주지 않으면, 고을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주는 경고의 표시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sup>‡</sup>

<sup>6</sup> 그리하여 사도들은 나가서,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었다.

### 헤롯이 예수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다

(마 14:1-12; 막 6:14-29)

<sup>7</sup> 갈릴리를 다스리는 영주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하고, <sup>8</sup>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아<sup>¶</sup>가 나타났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옛날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sup>9</sup> 헤롯이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잘라 죽였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헤롯은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였다.

###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다

(마 14:13-21; 막 6:30-44; 요 6:1-14)

<sup>10</sup>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들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따로 데리고 벳새다<sup>§</sup>라는 고을로 가셨다. <sup>11</sup>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아내어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 주셨다.

<sup>12</sup> 저녁 무렵에 열두 사도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흠여 보내어, 가까운 농장과 마을에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찾아보라고 해야겠습니다.”

<sup>13</sup> 그러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도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가진 것은 빵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오라는 말씀이십니까?” <sup>14</sup> (거기에는 남자만도 오천 명이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오십 명씩 둘러 앉혀라.”

<sup>15</sup>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다. <sup>16</sup> 예수께서는 빵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빵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누어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sup>17</sup>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를 제자들이 주워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sup>‡</sup> 9:5 발에 묻은 먼지를 떨다 그들과 더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표시.

<sup>¶</sup> 9:8 엘리아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sup>§</sup> 9:10 벳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마을.



###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다

(마 16:13-19; 막 8:27-29)

18 한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19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20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21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 예수께서 당신이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다

(마 16:21-28; 막 8:31-9:1)

22 그리고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괴로운 일을 많이 겪어야 한다. 유대의 장로들과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사람의 아들을 거부할 것이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23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25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하여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26 어떤 사람이 나 또는 내 가르침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다시 세상에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27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

(마 17:1-8; 막 9:2-8)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여드레쯤 뒤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29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실 정도로 희게 빛났다. 30 모세와 엘리야‡ ‡ 두 사람이 31 영광에 싸여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었다. 32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졸고 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 곁에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33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여기 있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초막¶ ¶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9:19 세례자 요한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 과 다른 사람.

† † 9:19 엘리야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 ‡ 9:30 모세와 엘리야 구약 시대의 중요한 두 지도자들.

¶ ¶ 9:33 초막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 지은 간단한 집 (신 16:13-17).

34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내려와 그들을 덮었다. 그들은 구름이 자기들을 덮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35 그때 구름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은 내가 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36 그 목소리가 그친 뒤에 그들이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 예수 악령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시다

(마 17:14-18; 막 9:14-27)

37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맞았다. 38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소리쳤다. “선생님, 제발 오셔서 제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입니다. 39 악령<sup>§</sup>이 그 아이에게 덮치면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온몸을 떨면서 입에 거품을 뱉니다. 악령은 계속 아이를 괴롭히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40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악령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4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은 참 믿음이 없고 마음이 비뚤어져 있구나!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들을 데려오너라.”

42 그 아이가 예수께 오는 동안에 귀신이 그 아이를 땅에 쓰러뜨렸다. 아이는 온몸을 떨었다. 예수께서는 악령<sup>\*</sup>을 무섭게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이가 나왔다. 예수께서는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43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

###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시다

(마 17:22-23; 막 9:30-32)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4 “내가 너희에게 하려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머지않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45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그 말의 뜻을 감히 예수께 여쭙어 보지 못하였다.

###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마 18:1-5; 막 9:33-37)

46 제자들 가운데서 말다툼이 일어났다.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나 하는 문제를 놓고 다툰 것이었다. 47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셨다. 48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사람이다.”

###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와 한편이다

(막 9:38-40)

49 그러자 요한이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 § 9:39 악령 또는 ‘귀신’. 악마에게서 나온 악한 영.

\* 9:42 악령 또는 ‘귀신’. 악마에게서 나온 악한 영.

<sup>50</sup>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사람을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와 한편이다.”

### 어떤 사마리아 마을

<sup>51</sup> 예수께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마음을 굳게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sup>52</sup> 그리고 몇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은 길을 떠나 예수께서 머무실 곳을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한 마을에 들어갔다. <sup>53</sup>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으므로 예수를 맞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sup>†</sup> <sup>54</sup>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이 사람들을 태워 죽이기를 바라십니까?” <sup>‡</sup> 라고 여쭙었다.

<sup>55</sup> 예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며 꾸짖으셨다. <sup>¶</sup> <sup>56</sup> 예수와 제자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 예수를 따르는 것

(마 8:19-22)

<sup>57</sup> 예수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sup>58</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하나 누일 곳이 없다.”

<sup>59</sup>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 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

<sup>60</sup>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도록 하여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sup>61</sup>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sup>62</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발을 갈려고 쟁기에 이미 손을 대고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 일흔두 사람을 보내시다

**10**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주께서 달리 일흔두 사람<sup>§</sup>을 뽑아, 당신이 찾아가시려고 하는 여러 고을과 고장으로 둘씩 짝지어 앞서 보내셨다. <sup>2</sup>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 일을 도울 일꾼은 적다.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당신의 밭에서 일할 일꾼을 더 보내 달라고 기도하여라. <sup>3</sup> 자, 가거라. 이리 떼 속으로 양들을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sup>4</sup> 돈주머니나 식량 자루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아라. 가는 길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멈추지도 말아라. <sup>5</sup> 어떤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sup>6</sup> 그 집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살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sup>7</sup> 너희는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같은 집에

<sup>†</sup> 9:53 **맞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으로 순례 가는 사람들을 싫어하였다.

<sup>‡</sup> 9:54 **주님…바라십니까** 몇몇 그리스어 사본에는 “엘리야가 한 것과 같이 저희가…” 라고 되어 있다.

<sup>¶</sup> 9:55 **55절** 몇몇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런 말이 덧붙여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들이 어떤 종류의 영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sup>56</sup>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다.”

<sup>§</sup> 10:1 **일흔두 사람** 어떤 그리스어 고대 사본들에는 ‘일흔 사람’ 으로 되어 있다.

머물면서,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샅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sup>8</sup> 너희가 어떤 고을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거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어라. <sup>9</sup> 그리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와 있다.’ 고 알려 주어라. <sup>10</sup> 그러나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지 않거든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sup>11</sup> ‘너희에게 향의하는 뜻으로 우리의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까지도 떨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와 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 두어라.’ <sup>12</sup>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 사람들보다 이 고을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라

(마 11:20-24)

<sup>13</sup> 고라신\*\*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벳새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그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보여 주었더라면, 그곳 사람들은 거친 베옷을 입고 잣더미 가운데 앉아서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sup>14</sup> 심판 날에 너희는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sup>15</sup>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 같으나? 어렵었다. 너는 죽은 자들이 가는 저승으로 떨어질 것이다!

<sup>16</sup>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다

<sup>17</sup> 일흔두 사람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자,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sup>18</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sup>19</sup> 잘 들어라. 나는 너희에게 뱀이나 전갈§§을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또 원수의 모든 힘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이 세상 어느 것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 <sup>20</sup> 그러나 악령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 아버지께 기도하시라

(마 11:25-27; 13:16-17)

<sup>21</sup>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여 주시니,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진정 바라시는 일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sup>22</sup>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 주기로 한 사람들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다.”

<sup>23</sup>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 받은 눈이다. <sup>24</sup>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 10:13 고라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도시. 예수께서 이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 10:13 벳새다 갈릴리 호숫가의 도시. 예수께서 이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 10:15 가버나움 예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갈릴리 지방의 도시.

¶¶ 10:17 귀신 또는 ‘악령’. 마귀에게서 나온 악한 영.

§§ 10:19 전갈 독침을 가진 곤충.

###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25 그때 한 율법 선생이 일어서서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2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27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영혼<sup>†</sup>을 다하고, 네 힘<sup>‡</sup>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sup>¶</sup>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sup>§</sup>고 쓰여 있습니다.”

2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은 대답이다. 네가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29 그 율법 선생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예수께 여쭙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30 예수께서는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강도들이 나타나 그 사람을 덮쳤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찢고 때린 다음, 거의 죽게 된 그를 두고 그냥 가 버렸다. 31 그때 어떤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게 되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았지만 멀찍이 피해서 가 버렸다. 32 그 다음에 어떤 레위 사람\*\*이 다가왔다. 레위 사람도 다친 사람을 보았지만 도와주지 않고 지나쳐 가 버렸다.

33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sup>††</sup>이 그 길을 내려왔다. 그는 다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에 다다랐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34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올리브기름과 포도주를 발라 주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맨 다음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다친 사람을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 주었다. 35 다음 날 사마리아 사람은 데나리온<sup>‡‡</sup> 두 개를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36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 율법 선생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 마리아와 마르다

38 예수께서 제자들과 여행을 하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반갑게 맞아들였다. 39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40 그런데 마르다는 준비할 것이 많아 무척 바빴다. 그는 예수께 와서 말씀드렸다. “주님, 제 동생이 제게 일을 떠맡기고 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41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을 하고 속상해하는구나. 42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더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10:27 마음 일반적으로 ‘지성’ ‘의지’ 를 상징한다.

† 10:27 영혼 일반적으로 ‘정서’ ‘감정’ 을 상징한다.

‡ 10:27 힘 능력과 수단(부)을 의미한다.

¶ 10:27 네 마음을…사랑하여라 신 6:5.

§ 10:27 네 이웃을…사랑하여라 레 19:18.

\*\*10:32 레위 사람 레위 가문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맡았다.

†† 10:33 사마리아 사람 이들에게도 유대 사람의 피가 반쯤 흐르고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순수한 유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겼다.

‡‡ 10:35 데나리온 고대 로마의 은돈.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다

(마 6:9-15)

**11** 어느 날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sup>2</sup>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기를 바랍니다.

<sup>3</sup>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sup>4</sup>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 끈질기게 구하여라

(마 7:7-11)

<sup>5</sup>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밤늦게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자. ‘여보게, 빵 세 덩이만 빌려 주게. <sup>6</sup>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찾아왔는데, 그 친구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네.’ <sup>7</sup> 그러면 그 친구는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가 보게! 문은 잠겼고 아이들과 나는 벌써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빵을 줄 수가 없네.’ <sup>8</sup> 잘 들어라. 그 사람이 친구라고 해서 그가 일어나 빵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끈질기게 조르면, 그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 <sup>9</sup>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sup>10</sup>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sup>11</sup> 너희 가운데 아들을 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아들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sup>12</sup> 그리고 너희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sup>¶</sup>을 주겠느냐? <sup>13</sup> 너희는 악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너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더욱 당신에게 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 예수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마 12:22-30; 막 3:20-27)

<sup>14</sup> 어느 날 예수께서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귀신이 나가자 병어리이던 그 사람이 곧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sup>15</sup>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 <sup>§ §</sup>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sup>16</sup>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예수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sup>17</sup>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갈라져서 싸우는 나라는 모두 망한다. 가족도 서로 싸우면 흩어지고 만다. <sup>18</sup> 이처럼 사탄이 스스로 나뉘어 자신과 싸우면 그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sup>¶</sup> ¶ 11:12 전갈 독침을 가진 곤충.

<sup>§ §</sup> 11:15 바알세불 다른 민족의 신의 이름(왕하 1:2). 신약 성경에서는 악령, 귀신, 마귀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너희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다. <sup>19</sup> 내가 바알세불에게서 힘을 얻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나?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sup>20</sup>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sup>21</sup>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sup>22</sup> 그러나 그보다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이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이 믿었던 무기를 빼앗고, 그의 재산을 약탈하여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줄 것이다.

<sup>23</sup>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 비어 있는 사람

(마 12:43-45)

<sup>24</sup> 어떤 사람에게 들어 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면, 그 귀신은 실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실 곳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sup>25</sup> 그 귀신이 돌아와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나간다. <sup>26</sup> 그러고는 자기보다 더 나쁜 귀신을 일곱이나 데리고 들어와서, 그곳에 자리 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 참으로 복 있는 사람

<sup>27</sup>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선생님을 낳아 기른 어머니는 복 있는 분이십니다.”

<sup>28</sup>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 몇몇 사람이 예수의 권위를 의심하다

(마 12:38-42; 막 8:12)

<sup>29</sup>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은 참으로 악하다. 그들은 내게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어떤 표적도 보여 주지 않을 것이다. <sup>30</sup>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다는 표적이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sup>31</sup> 심판 날에, 시바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으려고 멀고 먼 곳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이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에 있다! <sup>32</sup> 심판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에 있다!

\* **11:29** 요나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 큰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잡혀 있다가 살아 나왔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께서도 사흘 째 되는 날 무덤에서 살아 나오셨다.

† **11:31** 시바의 여왕 글자 그대로의 뜻은 ‘남쪽 여왕’.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아주 먼 길을 찾아왔었다(왕상 10:1-13).

‡ **11:31** 이가 또는 ‘것이’.

¶ **11:32** 이가 또는 ‘것이’.

###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라

(마 5:15; 6:22-23)

<sup>33</sup> 등불을 켜서, 그것을 숨겨 두거나 그릇으로 덮여 두는 사람은 없다. 등불은 등잔대 위에 얹어 놓아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 <sup>34</sup> 네 눈은 몸을 밝히는 빛이다. 눈이 성하면 네게 필요한 빛을 다 받는다. 그러나 눈이 성치 못하면 모든 것이 캄캄할 것이다. <sup>35</sup> 그러니 조심하여라! 네 안에 어둠이 아니라 빛을 간직하도록 하여라. <sup>36</sup> 네 몸에 빛이 가득하여 몸의 어디에도 어두운 구석이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를 비추는 것처럼 네 온몸이 밝은 빛을 낼 것이다.”

###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다

(마 23:1-36; 막 12:38-40; 눅 20:45-47)

<sup>37</sup>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자기 집에서 음식을 드시자고 청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 상 앞에 앉으셨다. <sup>38</sup> 그런데 예수께서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씻지<sup>§</sup> 않으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이 깜짝 놀랐다. <sup>39</sup>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이나 접시의 겉을 깨끗이 닦는데,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sup>40</sup>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sup>41</sup>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할 것이다. <sup>42</sup>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그 밖의 모든 채소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나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십분의 일을 바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반드시 실천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sup>43</sup>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정말로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sup>44</sup>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아무런 표지가 없는 평평한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 위로 걸어나간다.”††

<sup>45</sup> 한 율법 선생이 예수께 “선생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율법 선생님도 함께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투덜거렸다.

<sup>46</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율법 선생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지키기 힘든 어려운 규칙들을 억지로 사람들에게 지운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을 도우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sup>47</sup> 너희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예언자들을 죽인 것은 바로 너희 조상이었다. <sup>48</sup> 너희는 조상들이 한 짓이 잘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 <sup>49</sup>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 예언자와 사도들 가운데서 더러는 죽임을 당하고 더러는 박해를 당할 것이다.’ <sup>50</sup> 그러므로 이 세대는 세상이 생겼을 때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sup>51</sup> 곧 아벨 ‡ † 을

§ **11:38 손을 씻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 관습.

\*\* **11:42 박하, 운향…바친다** 밭에서 키우는 작은 채소로 음식의 양념으로 쓰인다. 모세의 법에 보면 발작물과 가축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다(레 27:30-32; 신 26:12). 이러한 채소들은 바쳐야 될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작은 채소들까지 바치는 것이 모세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 **11:44 사람들은…걸어나간다**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은 부정을 타게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다.

‡ ‡ **11:51 아벨** 구약성경에서 맨 처음 죽임을 당한 사람.



죽여 흘린 피에서부터 사가라 ¶가 제단 § § 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흘린 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지금 살고 있는 너희는 이 모든 사람을 죽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sup>52</sup> 너희 율법 선생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었다. 그리고는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가로막고 있다.”

<sup>53</sup>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실 때에,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앙심을 품고 예수께 대들며 여러 가지 물음을 퍼부었다. <sup>54</sup> 그분의 대답에서 트집거리를 찾으려는 것이었다.

### 바리새파 사람들을 닮지 말아라

**12**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곧 그들의 위선을 조심하여라. <sup>2</sup> 감추어진 것은 모두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것은 모두 알려질 것이다. <sup>3</sup>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을 사람들이 밝은 곳에서 들을 수 있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속삭인 말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 하나님만 두려워하여라

(마 10:28-31)

<sup>4</sup> 나의 친구인 너희들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가 죽은 뒤에는 더 이상 너희를 어찌지 못한다. <sup>5</sup>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너희를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버릴 권한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렇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그분이다.

<sup>6</sup> 작은 참새 다섯 마리가 겨우 동전 두 닢에 팔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sup>7</sup>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까지 다 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 10:32-33; 12:32; 10:19-20)

<sup>8</sup> 내가 말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가 자기의 사람이라고 시인할 것이다. <sup>9</sup>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나의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당할 것이다.

<sup>10</sup>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다.

<sup>11</sup>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과 통치자들과 높은 관리들 앞으로 끌어갈 때,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sup>12</sup> 그런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 이기심에 대하여 경고하시다

<sup>13</sup>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제게도 나누어 주라고 제 형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sup>14</sup>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나를, 네 아버지 재산을 너희 두 형제가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sup>15</sup>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 ¶ **11:51 사가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역대로 끝난다.

§ § **11:51 제단** 이 제단은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던 곳.

“너희는 늘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경계하여라. 사람의 목숨은 그가 가진 많은 재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sup>16</sup> 그리고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부자가 자기 밭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 <sup>17</sup>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였다. ‘곡식을 다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sup>18</sup> 옳지, 이러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곳간들을 헐고 더 큰 곳간들을 짓자. 그리고 새 곳간에 곡식과 값나가는 것들을 다 넣어 두면 되겠구나. <sup>19</sup> 그리고 나면 나 자신에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쓰고도 남을 값진 것들을 곳간에 가득 쌓아 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 <sup>20</sup>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는다. 그러니 네가 쓰려고 마련해 놓은 것들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sup>21</sup>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 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마 6:25-34, 19-21)

<sup>22</sup>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sup>23</sup> 삶에는 음식이나 옷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sup>24</sup> 까마귀들을 보아라. 까마귀들은 곡식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집이나 곳간에 먹을 것을 쌓아 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살펴 주신다.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sup>25</sup>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함으로써 목숨을 단 한 시간인들 늘일 수 있느냐? <sup>26</sup> 너희는 그렇게 작은 일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sup>27</sup>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힘써 일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이 꽃 하나만큼도 잘 차려 입지 못하였다. <sup>28</sup>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쭉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신다.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sup>29</sup>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sup>30</sup>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런 것들을 위해 애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sup>31</sup>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더불어 받게 될 것이다.

### 돈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라

<sup>32</sup> 내 어린양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sup>33</sup>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고,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다. <sup>34</sup>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기 마련이다.

###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라

(마 24:42-44)

<sup>35</sup> 준비하고 있어라! 옷을 갖춰 입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sup>36</sup> 마치 결혼 잔치에 갔다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되어라. 그들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열린 문을 열어 줄 수 있다. <sup>37</sup>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 있는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앞치마를 걸치고, 종들을 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종들어 줄 것이다.

\* 12:27 솔로몬 왕 다윗왕의 아들.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 알려져 있다.

38 주인이 한밤중에 오거나 좀 더 늦게 오더라도 종들이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39 이것을 분명히 알아 두어라. 만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올지 알면, 그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40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사람의 아들은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 누가 믿음직한 종이냐?

(마 24:45-51)

41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42 주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슬기롭고 믿음직한 관리인이겠느냐? 주인이 다른 종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에 나누어 주는 일을 맡길 만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43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은 크게 복을 받을 것이다. 44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틀림없이 그 종에게 자기 재산을 모두 맡겨 관리하게 할 것이다. 45 그러나 일을 맡긴 그 종이 ‘주인님이 그리 쉬이 돌아오시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여, 다른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날을 보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자. 46 주인은 그 악한 종이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하지 못한 시간에 돌아와서, 그 종을 아주 심하게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다른 종들과 함께 내쫓을 것이다.

47 주인이 자기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주인이 바라는 것을 해 드리려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종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48 그러나 주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벌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한 종은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많은 것을 맡긴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청할 것이다.”

###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마 10:34-36)

49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려고 왔다. 그 불이 벌써 타오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50 그러나 내게는 받아야 할 세례<sup>†</sup>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큰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51 너희는 내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세상이 갈라져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52 이제부터 한 가족이 다섯 사람이면, 세 사람은 나를 따르고 두 사람은 나를 반대하여 서로 갈라질 것이다. 아니면 두 사람이 나를 따르고 세 사람이 나를 반대하여 서로 갈라질 것이다. 53 그들이 모두 갈라져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고, 어머니가 딸과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맞설 것이다.”

### 때를 알아라

(마 16:2-3)

54 그리고 예수께서 모인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서쪽에 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곧 ‘폭풍우가 오겠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비가 내린다. 55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너희는 ‘오늘은 덥겠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56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sup>†</sup> 12:50 세례 보통은 ‘물에 푹 잠기다’ 라는 뜻을 가졌으나, 여기서는 ‘어려움에 파묻히다’ ‘어려움에 푹 잠기다’ 라는 특별한 뜻을 가진다.

## 너희 문제들을 해결하여라

(마 5:25-26)

57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느냐? 58 어떤 사람이 너를 고발하여,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재판소로 가는 길이면, 재판소에 닿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겨주고, 간수는 너를 감옥에 처넣을 것이다. 59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네가 빚진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 마음을 바꾸어라

**13** 1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있을 때, 빌라도<sup>‡</sup>가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고 있던 제물의 피와 섞어 버렸다는 이야기였다. 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3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4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5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 쓸모없는 나무

6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과수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 사람은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7 그래서 과수원지기에게 말하였다.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삼 년이나 와 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구나. 이 나무를 베어 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를 어찌하여 그대로 두겠느냐?’ 8 과수원지기가 말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일 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9 내년엔 열매가 열리면 다행이고, 내년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베어 버리시지요.’”

## 안식일에 여인을 고쳐 주시다

10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11 그 회당에는 악령에 사로잡혀 십팔 년 동안이나 제대로 몸을 쓰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바로 펼 수 없었다. 12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그 여자를 앞으로 불러내어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네 병에서 놓여났다!” 13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손을 얹자마자 그 여자가 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14 그런데 그곳의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셨기 때문에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한 주간 동안에 일할 수 있는 날이 몇새나 있소. 그러니 그때 와서 병을 고치시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러 오지 마시오.”

15 주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는 안식일에도 외양간의 가축들을 끌고 나가 물을 먹인다. 16 너희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여자는 십팔 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얽매여 시달려 왔다. 안식일이라도 이 여자가 사탄에게서 풀려나야 하지 않겠느냐?” 17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훌륭한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sup>‡</sup> 13:1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기원후 26-3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마 13:31-33; 막 4:30-32)

18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 나라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19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sup>¶</sup>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밭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동지를 틀었다.”

20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21 그것은 어떤 여자가 빵을 구우려고 밀가루 서 말<sup>§</sup>에 섞어 놓은 누룩<sup>\*\*</sup>과 같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 좁은 문

(마 7:13-14, 21-23)

22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가시며,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23 어떤 사람이 예수께 여쭙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24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다. 너희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려 하겠으나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5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문 밖에 서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 사람은 열어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간청할 것이다. ‘주인님, 저희에게 문 좀 열어 주십시오!’

그러나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또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26 그러면 너희는 말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선 우리 고을의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27 그러나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또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28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너희 자신은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29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차려진 잔치상에 앉을 것이다. 30 지금은 꼴찌이나 그때에는 첫째가 되고, 지금은 첫째이나 그때에는 꼴찌가 될 사람들이 있다.”

##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다

(마 23:37-39)

31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sup>††</sup>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32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sup>‡‡</sup>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오늘과 내일은 사람들에게서 귀신<sup>¶¶</sup>들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째

¶ 13:19 겨자씨 자라서 겨자나무가 된다. 겨자나무의 키는 보통 1.5미터 정도인데, 갈릴리 호수 둘레에서는 3미터까지 자라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에 속한다.

§ 13:21 서 말 글자 그대로는 ‘3사타스’. 약 22리터.

\*\* 13:21 누룩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소. 여기서는 좋은 영향을 뜻하는 상징으로 쓰였다.

†† 13:31 헤롯 헤롯 안티파스. 헤롯대왕의 아들로써,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였다.

‡‡ 13:32 여우 예수께서 헤롯이 영리하고 약삭빠르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 13:32 귀신 또는 ‘악령’. 마귀에게서 나온 악한 영.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낼 것이다.’<sup>33</sup>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sup>34</sup>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네게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다.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듯이 나는 여러 번 네 안에 사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게 오려 하지 않았다.<sup>35</sup> 이제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소서.’<sup>§</sup> 라고 말할 때까지 결코 나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일이 옳으냐?

**14**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떤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드셨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sup>2</sup> 그때 마침 예수 앞에는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 있었다.<sup>3</sup>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일이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sup>4</sup>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붙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셨다.<sup>5</sup>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구해 내지 않겠느냐?”<sup>6</sup>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은 예수의 말씀에 아무런 트집도 잡지 못하였다.

### 자신을 높이지 말아라

<sup>7</sup>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귀한 손님을 앉히는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시고,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sup>8</sup> “어떤 사람이 너를 결혼 잔치에 초대하면 뒷자리에 앉지 말아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sup>9</sup> 만일 그랬다가는, 너와 그를 초대한 주인이 네게 와서 ‘이분에게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할 것이다. 너는 창피를 당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sup>10</sup> 그러니 너는 초대를 받으면 맨 아랫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네게 와서 ‘여보게, 일어나 뒷자리로 올라가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너와 함께 음식을 먹던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sup>11</sup>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일 것이다.”

### 너희는 보답을 받을 것이다

<sup>12</sup>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대접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 이웃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네가 대접한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sup>13</sup> 그러니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sup>14</sup>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 네게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날, 너는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 큰 잔치 비유

(마 22:1-10)

<sup>15</sup> 예수와 함께 상에 앉아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sup>16</sup>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려고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sup>17</sup> 잔치 때가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심부름하는 종을 보내어

§ § 13:35 주의 이름으로… 받으소서 시 118:26.

\* 14:2 수종병 몸의 조직 간격이나 체강 안에 림프액 또는 장액이 괴어 몸이 붓는 병.

‘오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전하게 하였다. <sup>18</sup> 그러나 손님들은 한결같이 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대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방금 밥을 하나 샀기 때문에 가서 둘러보아야 하겠네. 용서하게.’ <sup>19</sup>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방금 겨릿소 다섯 쌍<sup>†</sup>을 샀기 때문에 일도 시켜 보고 소들도 살펴보아야겠네. 미안하네.’ <sup>20</sup>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방금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네.’ <sup>21</sup> 심부름을 갔던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런 사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주인은 화가 나서 종에게 말하였다. ‘가거라! 시내의 거리에도 가고, 골목길에도 가거라.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인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sup>22</sup> 한참 뒤에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지만 아직도 빈 자리가 있습니다.’ <sup>23</sup>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성 밖으로 나가 큰길을 지나는 사람들이나 울타리 틈새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라. 가서, 억지로라도 그들을 불러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sup>24</sup> 잘 들어라. 내가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은 결코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 나를 따르려면 단단히 결심해야 한다

(마 10:37-38)

<sup>25</sup>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무리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sup>26</sup>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아들딸, 형제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sup>27</sup>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sup>28</sup> 너희 가운데 탐을 세우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돈이 얼마나 들지 따져 보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 탐을 다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지 않겠느냐? <sup>29</sup> 그가 탐의 기초를 놓고 끝낼 수 없게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어 말할 것이다. <sup>30</sup> ‘이 사람이 탐을 세우기 시작하더니 끝을 내지는 못하였구나!’

<sup>31</sup>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는 먼저 자기 군대 만 명을 데리고 이만 명을 가진 상대편 임금을 이길 수 있을지 앉아서 따져 볼 것이다. <sup>32</sup> 만일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면, 상대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어 평화 조약을 맺자고 청할 것이다. <sup>33</sup>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너희가 가진 영향력을 잃지 말아라

(마 5:13; 막 9:50)

<sup>34</sup>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것을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sup>35</sup> 그 소금은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sup>†</sup> 14:19 겨릿소 다섯 쌍 겨릿소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인 거리를 끄는 소. 그러므로 ‘겨릿소 다섯 쌍’은 소 열 마리가 될 것이다.

## 하늘나라의 기쁨

(마 18:12-14)

**15** 많은 세무원<sup>‡</sup>들과 죄인<sup>¶</sup>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었다.<sup>2</sup>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sup>3</sup> 그러자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sup>4</sup> “너희 가운데 누가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둔 채 나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sup>5</sup> 그러다가 찾으면 그는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sup>6</sup> 집으로 갈 것이다. 그 사람은 친구와 이웃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잃어버렸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sup>7</sup>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크게 기뻐할 것이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

<sup>8</sup> 어떤 여자가 은돈<sup>§</sup> 열 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 여자는 불을 켜 들고 집을 샅샅이 청소하며, 그 돈을 찾을 때까지 구석구석 뒤지지 않겠느냐? <sup>9</sup> 그러다가 잃어버린 은돈을 찾으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잃어버렸던 은돈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sup>10</sup>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 두 아들의 비유

<sup>11</sup>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sup>12</sup>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sup>13</sup>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모두 가지고 집을 떠났다. 그리고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사느라고 가진 돈을 헛되게 써 버렸다. <sup>14</sup>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써 버린 뒤에 그 지방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은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sup>15</sup>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 사람은 아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sup>16</sup>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콩깍지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sup>17</sup> 그제야 아들은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의 그 많은 종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죽게 되었구나. <sup>18</sup> 여기를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sup>19</sup>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사꾼들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sup>20</sup> 마침내 아들은 그곳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 작은 아들이 돌아오다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sup>‡</sup> **15:1** 세무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하였다

<sup>¶</sup> **15:1** 죄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직업상로나 종교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모두 죄인으로 여겼다.

<sup>§</sup> **15:8** 은돈 고대 로마의 은돈인 데나리온. 당시 하루 품삯이 보통 데나리온 한 닢이었다.



21 아들이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 주고 신도 신겨 주어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잔치를 베풀고 축하하자!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는 이 아이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축하하기 시작하였다.

### 큰아들이 불평하다

25 발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가 집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사람들이 기뻐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다. 26 그는 종 하나를 불러서 물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27 종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이 돌아오셔서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우님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셔서 무척 기뻐하고 계십니다!’

28 큰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기 시작하였다. 29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여러 해 동안 저는 종처럼 아버지를 섬겨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염소 한 마리라도 주어서, 30 제가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열게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 파는 여자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써 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31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네 것이다. 32 그런데 네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겁게 잔치를 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 참된 재산

**16**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를 위해 일해 줄 관리인을 한 사람 두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이 부자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2 부자는 관리인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자네에 관한 이 소문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자네는 더 이상 내 관리인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니 그 동안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적어서 가져오게.’

3 관리인이 속으로 생각하였다. ‘주인님이 관리인 노릇을 그만두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밭을 파서 농사지을 힘도 없고 얻어먹기도 부끄럽구나. 4 옹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관리인 자리를 잃게 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받아 주도록 미리 손을 써야겠다.’

5 그래서 관리인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렀다. 관리인은 첫째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6 그 사람이 ‘올리브기름 백 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관리인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게 당신의 빚 문서요. 얼른 앉아서 오십 말로 줄여 적으시오.’

7 관리인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가 대답하였다. ‘밀 백 말††입니다.’

관리인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게 당신의 빚 문서요. 팔십 말이라고 줄여서 적어 넣으시오.’

8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이 일을 영리하게 처리했다고 칭찬하였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일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속의

\*\*16:6 백 말 글자 그대로는 ‘백 바투’. 3킬로리터쯤 되는 양.

††16:7 백 말 글자 그대로는 ‘백 코루’. 35킬로리터쯤 되는 양.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리하여 네 재물이 다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sup>10</sup> 누구든지 아주 적은 것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도 맡길 수 있다. 아주 적은 것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것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sup>11</sup> 그러니 너희가 세속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재산을 맡기겠느냐? <sup>12</sup>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을 만큼 믿음직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sup>13</sup> 종이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쪽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쪽은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sup>‡</sup>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 하나님의 법은 바꿀 수 없다

(마 11:12-13)

<sup>14</sup>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 <sup>15</sup>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속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패씸하고 미운 것이다.

<sup>16</sup>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은 요한이 올 때까지 선포되었다. 그러나 요한이 온 뒤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힘써 그리로 들어가고 있다. <sup>17</sup> 율법에서 가장 작은 획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 이혼과 재혼

<sup>18</sup>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sup>¶</sup>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 부자와 나사로

<sup>19</sup>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가장 좋은 옷<sup>§§</sup>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sup>20</sup> 그런데 그 집 문간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누워 있었다. 나사로는 온 몸이 헌데투성이였다. <sup>21</sup>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어하였다.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sup>22</sup> 얼마 뒤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데려다가 아브라함<sup>\*</sup> 곁에 두었다.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sup>23</sup> 죽음의 세계<sup>†</sup>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부자가 올려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였다. 그리고 그 곁에는 나사라도 있었다. <sup>24</sup>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제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좀 시원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불 속에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sup>25</sup>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애야, 돌이켜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 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sup>26</sup>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sup>‡</sup> **16:13 돈** 그리스어로는 ‘맘몬’, ‘세상의 부’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다.

<sup>¶</sup> **16:18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것.

<sup>§§</sup> **16:19 좋은 옷** 글자 그대로는 ‘자주색 옷과 고운 모시 옷’.

<sup>\*</sup> **16:22 아브라함** 유대 사람의 조상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 받는 조상.

<sup>†</sup> **16:23 죽음의 세계** 글자 그대로는 그리스어 ‘하데스’로, 죽은 이들이 머무는 곳인 ‘스올’을 뜻하는 말. 자주 ‘죽음’의 은유어로 쓰인다.

깊은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네게로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올 수도 없다.’

<sup>27</sup> 부자가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정 그러시다면 나사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sup>28</sup> 제게는 다섯 형제가 있습니다. 나사르가 제 형제들에게 가서 경고하여, 그들은 이런 고통스런 곳으로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sup>29</sup>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이 있다. 그러니 그들은 그것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sup>30</sup> 부자가 다시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었던 사람이 가서 말을 해 주면 제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sup>31</sup>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 형제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다.’”

### 죄짓게 하지 말고, 용서는 쉽게 하라

(마 18:6-7, 21-22; 막 9:42)

**1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sup>2</sup>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만드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sup>‡</sup>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은 것이다. <sup>3</sup>그러니 조심하여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 형제를 꾸짖어라. 그러나 그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sup>4</sup>만일 그가 하루에 일곱 번 네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네게 돌아와서 ‘잘못했네. 용서해 주게.’ 라고 말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라.”

###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크나?

<sup>5</sup> 사도들이 주께 말하였다. “저희들의 믿음을 키워 주십시오!”

<sup>6</sup>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sup>¶</sup>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뽕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말하면, 너희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 착한 종들이 되어라

<sup>7</sup>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일을 마치고 들에서 돌아올 때에 그가 종에게 ‘어서 상에 앉아 밥을 먹어라.’ 하고 말하겠느냐? <sup>8</sup>아니다! 그는 ‘나를 위해 저녁 준비를 하여라.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을 들어라. 너는 나중에 먹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sup>9</sup>그가 시킨 일을 했다고 하여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sup>10</sup>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명령 받은 일을 다 했을 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 감사하여라

<sup>11</sup>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지나시게 되었다. <sup>12</sup> 예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다, 나병에 걸린 열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리 서서 <sup>13</sup>큰 소리로 외쳤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sup>‡</sup> 17:2 맷돌 곡식을 갈기 위해 사용하는 크고 둥근 돌.

<sup>¶</sup> 17:6 겨자씨 자라서 겨자나무가 된다. 겨자나무의 키는 보통 1.5미터 정도인데, 갈릴리 호수 둘레에서는 3미터까지 자라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에 속한다.

14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sup>§</sup>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5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께 돌아왔다. 16 그 사람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 예수께서 물으셨다. “병이 나은 사람은 열 사람이 아니더냐? 다른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18 이 외국 사람 하나밖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나?” 19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하였다.”

###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나?

(마 24:23-28, 37-41)

20 한번은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여쭙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앞세우고 오지 않는다.

21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22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들 가운데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날을 볼 수 없을 것이다. 23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저기에 그가 있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그가 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쫓아 달려가지 말아라. 24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는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날에 그는 온 하늘을 비추는 번개처럼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25 그러나 그에 앞서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26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도 노아가 살았던 때와 같을 것이다. 27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다 죽고 말았다.

28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팔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있었다. 29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는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자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30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똑같을 것이다. 31 그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물건을 챙기러 내려와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들에 나가 있던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32 롯의 아내 † † 가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기억하여라. 33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오는 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자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35 또 두 여자가 멧돌로 곡식을 갈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 둘 것이다.”<sup>‡ ‡</sup>

37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었다. “주님,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언제나 주검이 있는 곳을 알려면, 독수리가 모여드는 곳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 17:14 가서...보여라 모세의 법에는 제사장이 심한 피부병에 걸린 유대 사람이 나았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었다.

\*\* 17:16 사마리아 사람 이들에게도 유대 사람의 피가 반쯤 흐르고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순수한 유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겼다.

† † 17:32 롯의 아내 창 19:15-17, 26을 볼 것.

‡ ‡ 17:36 36절 몇몇 그리스어 누가복음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36절이 있다. “두 사람이 같이 들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18**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sup>2</sup>“어느 고을에 재판관이 있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관하지 않았다. <sup>3</sup>같은 고을에 홀어미가 한 사람 있었다. 그 홀어미는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가 말하였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내 원수에게서 정당한 내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sup>4</sup>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 여자의 청을 거절하였으나, 한참 뒤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관하지 않는다. <sup>5</sup>그러나 이 여자가 나를 끊임없이 귀찮게 한다. 이 여자가 바라는 대로 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러면 너는 나를 찾아와 괴롭히지 않겠지?’

<sup>6</sup>주께서 말씀하셨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의 뜻을 잘 새겨들여라! <sup>7</sup>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당신께 울부짖고 있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겠느냐? <sup>8</sup>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정당한 권리를 서둘러 되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sup>9</sup>자기들은 의롭다고 굳게 믿고,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sup>10</sup>“바리새파사람과 세무원이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 <sup>11</sup>바리새파 사람은 홀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훔치고 속이고 간음하는 자들이나, 이 세무원과 같지 않습니다. <sup>12</sup>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가 얻는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바칩니다.’

<sup>13</sup>그러나 세무원은 멀찍이 서서 기도하였다.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sup>14</sup>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바리새파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 세무원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돌아갔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모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마 19:13-15; 막 10:13-16)

<sup>15</sup>사람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sup>16</sup>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여라.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sup>17</sup>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어떤 부자가 예수께 묻다

(마 19:16-30; 막 10:17-31)

<sup>18</sup>어떤 유대 사람 지도자가 예수께 여쭙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sup>19</sup>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sup>20</sup>그렇지만 네 물음에 대답은 하겠다. 너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 는 계명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1 그 지도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22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네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참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3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했다. 그는 아주 부자였기 때문이다.

24 예수께서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 25 참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26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27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28 베드로가 말하였다. “저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2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30 그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몇 배로 얻을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 예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 20:17-19; 막 10:32-34)

31 예수께서 열두 사도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게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32 사람의 아들이 배반당하여 이방 사람 § 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를 놀리고 모욕하고 그에게 침을 뱉을 것이다. 33 그들은 그를 채찍으로 때린 뒤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4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실은 그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그분이 무언에 관하여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었다.

###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시다

(마 20:29-34; 막 10:46-52)

35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길가에 눈먼 사람 하나가 구걸하며 앉아 있었다. 36 그 눈먼 사람이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37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고 있소.” 라고 말해 주었다.

38 그러자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9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 눈먼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히 나무랐다. 그러나 그는 더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0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 사람이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41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 ¶ 18:20 간음하지 마라...공경하라 출 20:12-16; 신 5:16-20.

§ § 18:32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18:38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메시아)를 일컫는 이름.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즈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예수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sup>42</sup>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볼 수 있게 되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sup>43</sup>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삭개오

**19** 예수께서 예리고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다. <sup>2</sup> 예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무서장<sup>†</sup> 이었고 부자였다. <sup>3</sup>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를 볼 수 없었다. <sup>4</sup>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그분이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다. <sup>5</sup>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르러서 위를 올라다보시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sup>6</sup> 그러자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를 모셔 들었다. <sup>7</sup> 이 일을 본 모든 사람이 투덜거리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저런 죄인의 손님으로 그 집에 들어가시다니!”

<sup>8</sup>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네 배로 갚겠습니다!”

<sup>9</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sup>10</sup>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써라

(마 25:14-30)

<sup>11</sup>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sup>12</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먼 나라에 가서 임금으로 임명을 받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떠날 준비를 하였다. <sup>13</sup> 그는 종 열 사람을 불렀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돈을 한 므나<sup>‡</sup>씩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여라.’ 라고 일렀다.

<sup>14</sup> 그런데 그의 백성은 그 사람을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 뒤로 사절단을 보내어 왕위를 줄 사람에게 말하게 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sup>15</sup> 그러나 그 귀족은 임금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주고 간 종들을 불렀다. 그들이 그 돈으로 얼마씩 벌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sup>16</sup>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주신 돈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습니다!’

<sup>17</sup> ‘잘하였다! 너는 착한 종이다.’ 그의 주인이 말하였다.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이제 열 고을을 맡아 다스리도록 하여라.’

<sup>18</sup> 둘째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돈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벌었습니다!’

<sup>19</sup> 그의 주인이 말하였다. ‘너는 다섯 고을을 맡아 다스려라!’

<sup>20</sup> 그리고 다른 종이 들어왔다. 그 종은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여기 주인님이 주신 돈 한 므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헹겊으로 싸서 잘 숨겨 두었습니다. <sup>21</sup> 저는 주인님이 엄하신 분이라 무서웠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십니다.’

<sup>†</sup> 19:2 세무서장 ‘세무원’ 을 찾아 볼 것.

<sup>‡</sup> 19:13 한 므나 한 므나는 노동자 한 사람의 석 달 치 품삯쯤 되었다.

22 그의 주인이 대답하였다. ‘너는 악한 종이다! 네가 한 그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 알고 있었다. 23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맡겨 두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을 이자와 함께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24 그리고 임금은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종에게서 한 므나를 빼앗아서 열 므나를 번 종에게 주어라.’

25 사람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주인님, 그 종은 벌써 열 므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26 주인이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7 내가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던 내 원수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마 21:1-11; 막 11:1-11; 요 12:12-19)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 올라가셨다. 29 올리브 산<sup>¶</sup>이라 불리는 산턱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시자,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30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거라. 거기에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어오너라. 31 만일 누가 ‘무슨 일로 나귀를 풀니까?’ 하고 묻거든, ‘주님께 이 나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여라.”

32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33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을 때 나귀 주인들이 물었다. “어찌하여 나귀를 푸는 거요?”

34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 이 나귀가 필요합니다.” 35 그들은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나귀 등에 깔고 예수를 그 위에 앉으시게 하였다. 36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 깔았다.

37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에, 온 제자의 무리가 기쁨에 떠들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38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sup>§</sup>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39 무리 가운데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이 저런 말을 하지 못하게 꾸짖으십시오!”

4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 예루살렘을 위해 우시다

41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시자, 그 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42 말씀하셨다. “오늘 네가, 정말로 네가, 무엇이 네게 평화를 가져다줄지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지금 그 길이 네 눈에는 감추어져 있구나. 43 네 원수들이 네 둘레에 흙 언덕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조여 들어올 날이 닥칠 것이다. 44 네 원수들이 너와 네 성벽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땅에 내동댕이칠 것이다. 네 성벽 안에 있는 건물 가운데 단 하나의 돌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려고 오셨을 때 네가 그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sup>¶</sup> 19:29 올리브 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

<sup>§</sup> 19:38 시 118:26.



### 성전에 가신 예수

(마 21:12-17; 막 11:15-19; 요 2:13-22)

45 예수께서 성전 구역으로 들어가셔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46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

47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길을 찾고 있었다. 48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어서 그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묻다

(마 21:23-27; 막 11:27-33)

**20**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2 “말해 보시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4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권한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5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은 이 물음을 두고 서로 의논하였다. “만일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예수는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물을 것이다. 6 그러나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다.” 7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8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시다

(마 21:33-46; 막 12:1-12)

9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사람은 그 밭을 농부들에게 세 주고,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다. 10 포도를 거둬들일 때가 되자, 그 사람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쫓아 버렸다. 11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농부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한 다음, 또다시 빈손으로 쫓아 버렸다. 12 그래서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다. 농부들은 그 종을 심하게 때리고 상처를 입혀 내쫓았다.

13 그러자 포도밭 주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14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이 사람은 포도밭을 물려받을 주인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이 포도밭은 우리 차지이 될 것이다.’ 15 그래서 농부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은 다음 죽여 버렸다.

그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16 그는 농부들을 찾아와 그들을 죽이고, 그 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하였다.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19:46 사 56:7.

† † 19:46 내 집은...만들었다 렘 7:11.

17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 구절은 무슨 뜻이란 말이나?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sup>‡</sup>이 되었다.’<sup>¶</sup>

18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모두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으스러지고 말 것이다!”

19 율법 선생들과 높은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를 잡아 가두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손을 쓰지 못하였다.

###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

(마 22:15-22; 막 12:13-17)

20 율법 선생들과 높은 제사장들은 예수를 지켜보다가 정탐꾼 몇 사람을 보냈다. 정탐꾼들은 정직한 사람인 체하였다.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아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는 것이었다. 로마 총독에게는 그들을 다스리고 처벌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21 정탐꾼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듣는 사람이 누구든 가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22 그러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저<sup>§</sup>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23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음흉한 속셈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24 “데나리온\*하나를 보여 다오. 거기에 누구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시저의 것입니다.”

25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26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예수의 대답에 놀라 입을 다물고 말았다.

### 몇몇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

(마 22:23-33; 막 12:18-27)

27 사두개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 28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를 위해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하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30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였는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31 그리고 셋째도 그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죽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32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33 그런데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결혼하였으니,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34 예수께서 사두개파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35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저 세상에 참여하게 할 만한 사람들로 여기시는 사람들은, 장가도 들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을 것이다. 36 그리고 다시는 죽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들은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었다가

‡ 20:17 모퉁이의 머릿돌 한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첫번째 돌.

¶ 20:17 시 118:22.

§ 20:22 시저 로마 황제를 이르는 칭호.

\* 20:24 데나리온 고대 로마의 은돈.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다시 살아난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다.<sup>37</sup> 그리고 모세도 불타는 덩불<sup>†</sup> 이야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이야기에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sup>‡</sup>이라고 부르고 있다.<sup>38</sup>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아니라 오직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다.”

<sup>39</sup> 율법 선생 몇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대답이 정말 옳습니다.”<sup>40</sup> 그러자 누구도 감히 예수께 다시 묻지 못하였다.

###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가?

(마 22:41-46; 막 12:35-37)

<sup>41</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sup>42-43</sup> 시편에서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앞에 무릎 꿇게 할 때까지,<sup>¶</sup>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sup>§</sup>

<sup>44</sup>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

### 율법 선생들에게 하신 경고

(마 23:1-36; 막 12:38-40; 요 11:37-54)

<sup>45</sup> 모든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sup>46</sup> “율법 선생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예복을 걸치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긴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칫집에 가서도 귀한 손님 자리에 앉고 싶어한다.<sup>47</sup> 그러나 그들은 홀어미들을 속여서 그들의 집을 빼앗는다. 그러고는 남들 앞에서는 좋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늘어놓는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 참된 헌금

(막 12:41-44)

**21** 예수께서, 부자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돈을 성전 헌금궤\*\*에 넣는 것을 눈여겨보셨다.<sup>2</sup> 그리고 가난한 홀어미가 작은 동전 둘을 헌금궤에 넣는 것도 눈여겨보셨다.<sup>3</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홀어미는 저 부자들 모두보다 더 많이 바쳤다.<sup>4</sup> 부자들은 자기들의 넉넉한 재산 가운데서 얼마를 바쳤지만, 이 여자는 가난한 가운데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다.”

<sup>†</sup> 20:37 불타는 덩불 출 3:1-12을 볼 것.

<sup>‡</sup> 20:37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출 3:6.

<sup>¶</sup> 20:42-43 내가...때까지 글자 그대로의 뜻은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의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sup>§</sup> 20:42-43 시 110:1.

\*\* 21:1 헌금궤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나 선물을 넣는 궤.

## 성전의 파괴

(마 24:1-14; 막 13:1-13)

<sup>5</sup>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장 좋은 돌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구나. 하나님께 바친 저 많은 훌륭한 선물들을 보아라!”

<sup>6</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파괴될 때가 올 것이다. 이 건물들의 돌 하나하나가 다 무너져 내려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sup>7</sup>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sup>8</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속아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고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바로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sup>9</sup>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곧 끝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sup>10</sup>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울 것이다. <sup>11</sup> 곳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 것이다. 하늘에서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sup>12</sup>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sup>13</sup> 그러나 그것이 너희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sup>14</sup> 그때에 무슨 말로 너희 자신을 변호할까 미리 걱정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어라. <sup>15</sup> 내가 너희에게 적절한 말을 일러 주고 지혜를 주어서, 너희 원수들이 너희에게 맞설 수도 되물어 따질 수도 없게 하겠다. <sup>16</sup> 너희의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까지도 너희를 그들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 가운데 더러는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sup>17</sup>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sup>18</sup>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sup>19</sup> 너희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 예루살렘의 파괴

(마 24:15-21; 막 13:14-19)

<sup>20</sup> 너희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라. <sup>21</sup>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른 성을 빠져나가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sup>22</sup>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실 때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때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바로 그때이다. <sup>23</sup> 그런 때에 야기를 배었거나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이 땅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sup>24</sup> 그들은 칼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못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외국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날 때까지 외국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 예수 인자가 다시 올 때

(마 24:29-31; 막 13:24-27)

<sup>25</sup> 해와 달과 별에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땅에서는 성난 바다와 파도 때문에 민족들이 어쩔 줄 몰라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sup>26</sup> 많은 사람이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내다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절하고 말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체들 자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sup>27</sup> 그때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큰 힘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sup>28</sup>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머리를 높이 들고 당당하게 일어서라.”

## 내 말은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마 24:32-35; 막 13:28-31)

<sup>29</sup> 예수께서 이런 비유<sup>††</sup>를 들려주셨다. “무화과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sup>30</sup> 그 나무들에서 잎이 돋으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up>31</sup>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아라.

<sup>32</sup>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sup>33</sup>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sup>34</sup> 너희는 조심하여, 너희의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짓눌리지 않게 하고, 그날이 덧과 같이 예기치 않은 때에 닥치지 않게 하여라. <sup>35</sup>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sup>36</sup> 그러므로 너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sup>37</sup> 예수께서는 날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성 밖으로 나가 올리브 산<sup>‡‡</sup>이라고 하는 산에서 밤을 지내셨다. <sup>38</sup> 날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몰려들었다.

## 유대 사람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다

(마 26:1-5, 14-16; 막 14:1-2, 10-11; 요 11:45-53)

**22** 유월절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다가왔다. <sup>2</sup>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조용히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다.

##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계획을 세우다

(마 26:14-16; 막 14:10-11)

<sup>3</sup> 예수의 열두 사도 가운데 가리옷 사람 유다가 있었는데,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sup>4</sup> 유다는 높은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였다. <sup>5</sup> 그들은 기뻐하며, 그가 예수를 넘겨주면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sup>6</sup>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넘겨주려고 마땅한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 유월절 식사 준비

(마 26:17-25; 막 14:12-21; 요 13:21-30)

<sup>7</sup>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되었다. 이날은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날이다. <sup>8</sup>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sup>9</sup>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께 여쭙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 준비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sup>10</sup>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sup>11</sup>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손님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sup>12</sup> 그러면 그 사람이 이층에 있는 넓은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그 방에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을 터이니, 거기에다 유월절 음식을 차려라.”

<sup>††</sup> **21:29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sup>‡‡</sup> **21:37 올리브 산**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동산.

13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 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그곳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 마지막 저녁 식사

(마 26:26-30; 막 14:22-26; 고전 11:23-25)

14 유월절 음식을 먹을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상에 앉으셨다. 사도들도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았다. 15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16 잘 들어라. 유월절이 상징하는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17 예수께서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서 말씀하셨다. “이 잔을 받아서 돌려가며 마셔라. 18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19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빵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20 이와 마찬가지로 저녁을 잡수신 뒤에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시는 새로운 계약의 표시이다. 이 새로운 계약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시작된다.” ¶

### 누가 예수를 배반할 것인가?

21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곧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사람의 손이 내 손과 함께 이 상 위에 있다. 22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23 그러자 사도들은 “우리 가운데 선생님께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수군거렸다.

### 종처럼 되어라

24 또한 사도들 가운데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자기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냐를 두고 일어난 것이었다. 25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자기 백성을 힘으로 다스린다.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백성을 돕는 위대한 사람’으로 불리기를 바란다. 26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27 상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시중을 드는 사람 가운데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이나? 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 가운데 시중드는 사람으로 와 있다.

28 너희는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 29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나도 너희에게 같은 권한을 준다. 30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각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 §의 열두 가문을 다스릴 것이다.

¶ ¶ 22:20 20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들에는 19절 뒷부분과 20절이 없다.

§ § 22:30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본래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 믿음을 잃지 말아라

(마 26:31-35; 막 14:27-31; 요 13:36-38)

<sup>31</sup> 시몬<sup>\*</sup>아, 시몬아, 들어라! 농부가 좋은 밭과 나쁜 밭을 가려내려고 키질하듯이, 사탄이 너희 모두를 밀처럼 키질하겠다고 요청하였다. <sup>32</sup>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네가 내게로 다시 돌아올 때 네 형제들이 더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어라.”

<sup>33</sup>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감옥에 갈 각오도 되어 있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sup>34</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오늘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하여라

<sup>35</sup>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나는 너희를 사람들에게로 내보내면서, 돈주머니도 식량 자루도 그리고 신발도 없이 보냈다. 그렇다고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sup>36</sup>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나 식량 자루가 있으면 그것을 챙겨라. 칼이 없으면 겹옷을 팔아서라도 한 자루 사도록 하여라. <sup>37</sup>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가 범죄자라고 말하였다.’<sup>†</sup>

라는 성경<sup>‡</sup>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나를 두고 쓰인 것이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sup>38</sup>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면 되었다.”

### 사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다

(마 26:36-46; 막 14:32-42)

<sup>39</sup>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 올리브 산<sup>¶</sup>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sup>40</sup>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sup>41</sup>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돌을 던지면 달을 만한 거리쯤 가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sup>42</sup>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통의 잔<sup>§</sup>을 저에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sup>43</sup>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힘을 북돋워 드렸다. <sup>44</sup> 예수께서 있는 힘을 다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피처럼 흘러 땅에 떨어졌다. <sup>45</sup> 예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다. 제자들은 슬픔에 치져 잠들어 있었다. <sup>46</sup>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어서 일어나서 유혹을 이겨 낼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sup>\*</sup> 22:31 시몬 시몬의 다른 이름이 베드로다.

<sup>†</sup> 22:37 사 53:12.

<sup>‡</sup> 22:37 성경 구약성경.

<sup>¶</sup> 22:39 올리브 산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산.

<sup>§</sup> 22:42 잔 예수께서 당신이 겪게 될 괴로운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맛이 고약한 것으로 가득 찬 잔을 마시는 것처럼 힘든 일이 될 것이다.

<sup>\*\*</sup> 22:44 43-44절 몇몇 초기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 예수께서 잡히시다

(마 26:47-56; 막 14:43-50; 요 18:3-11)

47 예수께서 아직도 말씀하고 게실 때에 한 떼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앞장서고 있었다. 유다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다가왔다.

48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느냐?” 49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보고 예수께 여쭙었다. “주님, 저희가 칼로 저들을 칠까요?” 50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51 예수께서는 “그만두어라!” 하고 말리시며, 그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 주셨다.

52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는, 높은 제사장들과 성전 수비대 장교들과 장로<sup>††</sup>들이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너희는 내가 강도인 줄로 아느냐? 53 나는 날마다 너희와 같이 성전에 있었지만, 너희는 나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때이다.”

###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다

(마 26:57-58, 69-75; 막 14:53-54, 66-72; 요 18:12-18, 25-27)

54 무리는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 55 군인들은 안마당 한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모여 앉았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56 여중 하나가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는 베드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하였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까!”

57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58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은 예수를 따라다니던 패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오.”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59 한 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말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

60 그러나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수탉이 울었다. 61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오늘 수탉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62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 경비병들이 예수를 조롱하다

(마 26:67-68; 막 14:65)

63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를 놀리고 때리기 시작하였다. 64 그러고는 예수의 눈을 가리고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65 그들은 온갖 말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서신 예수

(마 26:59-66; 막 14:55-64; 요 18:19-24)

66 날이 밝아 백성의 장로들 곧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이 모였다. 예수는 그 의회 앞으로 끌려갔다. 67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 22:52 장로 백성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 주던 나이 지긋한 사람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여도 당신들은 믿지 않을 것이요. <sup>68</sup>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도 당신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sup>69</sup> 그러나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요.”

<sup>70</sup> 그들 모두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들의 말이 옳소.”

<sup>71</sup>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듣지 않았는가!”

###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심문하다

(마 27:1-2, 11-14; 막 15:1-5; 요 18:28-38)

**23** 그리고 나서 온 의회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sup>2</sup>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이 자가 우리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시저 <sup>‡</sup>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 왔습니다.”

<sup>3</sup>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당신이 말한 그대로요.”

<sup>4</sup> 빌라도는 높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을 고발할 만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소.”

<sup>5</sup> 그러나 그들은 “이 자는 온 유대를 누비며, 그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부추겨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하고 우겨댔다.

###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다

<sup>6</sup>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다. <sup>7</sup> 빌라도는 예수께서 헤롯 <sup>¶</sup> 이 다스리는 지역 출신인 것을 알게 되자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다. 그때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sup>8</sup>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오래 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 왔으므로, 그분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sup>9</sup> 헤롯은 예수께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sup>10</sup> 그 자리에는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맹렬하게 예수를 고발하였다. <sup>11</sup> 그리고 나서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놀렸다. 그들은 예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sup>12</sup> 빌라도와 헤롯은 전에는 원수 사이였는데, 그날로 둘은 친구가 되었다.

### 예수는 죽어야 한다

(마 27:15-26; 막 15:6-15; 요 18:39-19:16)

<sup>13</sup> 빌라도는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모았다. <sup>14</sup>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고 내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앞에서 그를 심문하였지만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말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sup>15</sup> 헤롯도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는 죽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sup>16</sup> 나는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조금 하고 풀어 주겠습니다.” <sup>17</sup> § §

‡ **23:2 시저** 로마 황제를 이르는 칭호.

¶ **23:7 헤롯**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영주였다.

§ § **23:17 17절** 몇몇 그리스어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17절이 있다. “해마다 유월절 축제 때 빌라도는 죄수 한 사람씩을 풀어 주었다.”

18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외쳐 댔다. “이 자를 없애시오!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 주시오!”

19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죄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다.)

20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 주고 싶어서, 예수를 풀어 주겠노라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21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소리질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2 빌라도가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사형시켜야 할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질이나 조금 하고서 풀어 주겠습니다.”

23 그러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우겨댔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24 그리하여 빌라도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25 그는,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인 죄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 곧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 주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마 27:32-44; 막 15:21-32; 요 19:17-27)

26 군인들은 예수를 끌고 가다가 마침 시골에서 들어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다. 그들은 그를 붙들어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오게 하였다.

27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 가운데 어떤 여자들은 예수를 위하여 슬피 울었다.

28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아이들을 위해 울어라. 29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다가온다. ‘아이를 뱌 수 없는 여자들과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여자들과 아이에게 젖을 물려 본 적이 없는 여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30 그리고 사람들은 산과 언덕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산아,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 다오! 언덕아, 우리를 덮어 다오!’” 31 생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야 오죽하겠느냐?” †

32 두 사람의 죄수가 예수와 함께 처형당하려고 끌려가고 있었다. 33 군인들은 ‘해골산’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와 다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 죄수는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죄수는 왼쪽에 매달았다. 3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

군인들은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35 사람들은 그곳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비웃으며 말하였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였으니,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택함을 받은 분’ 이라면 자기 자신도 구해 보시라지.”

36 군인들까지도 예수를 비웃고 놀리며, 예수께 가까이 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해 보아라!” 38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의 왕이다’ 라고 쓴 팻말이 붙어 있었다.)

39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조롱하였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리스도라면 당신 자신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 주시오!”

40 그런데 다른 죄수가 그 죄수를 나무라며 말하였다. “너는 저분과 꼭 같이 사형 선고 받은 처지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너와 나는 나쁜 짓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잘못하신 것이 없다.” 42 그러고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에 ❶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 23:30 산아...덮어 다오 호 10:8.

† 23:31 생나무가...오죽하겠느냐 이 말은 속담으로, 여기서는 “죄 없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죄 많은 예루살렘의 운명은 어떠하겠느냐?”라는 뜻인 듯하다.

‡ 23:34 아버지...모릅니다 초기 누가복음 사본들에는 이런 말이 없다.

❶ 23:42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에 글자 그대로의 뜻은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43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sup>§</sup>에 있을 것이다!”

### 예수 숨을 거두시다

(마 27:45-56; 막 15:33-41; 요 19:28-30)

44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하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5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다. 46 예수께서 크게 외치셨다.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47 일어난 일들을 지켜본 한 백인대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48 이 굉장한 일을 구경하러 나왔던 많은 사람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49 그 자리에는 예수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 아리마대의 요셉

(마 27:57-61; 막 15:42-47; 요 19:38-42)

50 요셉이라는 의롭고 착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회 의원이었으나, 51 다른 의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한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지방의 아리마대라는 고을의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52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주검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였다. 53 요셉은 예수의 주검을 십자가에서 내려, 모시로 싼 뒤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 무덤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54 때는 준비일¶¶이었고, 해가 지고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55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예수의 주검을 어떻게 모셔 놓았는지도 보았다. 56 그리고 나서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예수의 주검에 바를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자들은 안식일에는 모세의 법에 따라 쉬었다.

###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마 28:1-10; 막 16:1-8; 요 20:1-10)

**24** 안식일 다음 날<sup>§</sup> 새벽 일찍,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의 주검을 모신 무덤으로 갔다. 2 그들이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러나 있었다. 3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주검이 없었다. 4 여자들이 어찌 된 일인지 알 수 없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 둘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 5 여자들은 겁에 질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는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6 그분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7 그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째 되는

§ 23:43 낙원 선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 23:45 성전의 휘장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와 성전의 다른 부분을 갈라놓는 휘장.

†† 23:46 아버지...맡기나이다 시 31:5.

‡‡ 23:47 백인대장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23:54 준비일 안식일 전 날인 금요일. ‘안식일’을 찾아 볼 것.

§ 24:1 안식일 다음 날 글자 그대로는 ‘한 주간의 첫 날’, 곧 일요일.

날에 다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sup>8</sup> 이 말을 듣고서야 여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sup>9</sup> 여자들은 무덤을 떠나 열한 사도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났던 일을 낱알이 이야기해 주었다.<sup>10</sup> 사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준 여자들은 막달라 여자인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었다.<sup>11</sup>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그 말이 터무니없는 헛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sup>12</sup> 그러나 베드로는 별떡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의 주검을 썼던 모시 천만 놓여 있었다.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막 16:12-13)

<sup>13</sup> 그날 예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십 리<sup>†</sup>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sup>14</sup>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sup>15</sup>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와 두 사람과 함께 걸으셨다.<sup>16</sup> 그런데도 두 사람은 눈이 가려져 그분을 보고도 예수시라는 것을 몰랐다.<sup>17</sup>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 분이 걸으면서 무슨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슬픈 얼굴로 걸음을 멈추었다.<sup>18</sup> 그 가운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난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sup>19</sup> 예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 말입니까?”

두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시는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크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sup>20</sup> 그런데 높은 제사장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sup>21</sup>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그분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인데,<sup>22</sup>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그들이 그분의 주검을 모셨던 무덤에 갔으나,<sup>23</sup> 그분의 주검을 그곳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우리에게 돌아와서 그곳에서 두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sup>24</sup>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여자들이 말한 대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sup>25</sup> 그러자 예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들이 한 말을 그렇게 믿지 못하다니, 그대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마음이 무디기도 합니다.<sup>26</sup>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통을 겪은 다음에 자신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sup>27</sup>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서<sup>‡</sup>와 모든 예언서들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하여 쓰인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

<sup>28</sup> 두 사람이 가려고 하던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그 마을에 들르지 않고 지나쳐 가시려는 척하셨다.<sup>29</sup> 두 사람은 예수께 함께 묵기를 간절히 청하였다. “우리와 함께 묵으시지요. 거의 저녁때가 다 되었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 사람과 함께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 24:12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 절이 없다.

† 24:13 삼십 리 글자 그대로는 ‘60스타디아’. 약 11킬로미터쯤 되는 거리.

‡ 24:27 모세의 율법서 구약 성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다섯 책.

30 예수께서는 두 사람과 함께 음식을 드시려고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런 다음 그 빵을 나누어 두 사람에게 주셨다.<sup>31</sup> 그 순간 두 사람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자 예수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sup>32</sup> 두 사람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성경<sup>¶</sup>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던가?”

33 두 사람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보니, 열한 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sup>34</sup> 두 사람을 보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입니다! 주께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5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나누어 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마 28:16-20; 막 16:14-18; 요 20:19-23; 행 1:6-8)

36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37 제자들은 놀랐으며, 자기들이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알고 무서워하였다.<sup>38</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속으로 의심하느냐? 유령에게는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대로 내게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sup>39</sup> 내 손과 발을 보아라. 정말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나는 이렇게 살아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 유령에게는 이런 몸이 없다.”

40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sup>41</sup>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고 그냥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먹을 것이 좀 있느냐?”<sup>42</sup> 제자들이 예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sup>43</sup>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받아 잡수셨다.

44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45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sup>46</sup>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쓰여 있다.<sup>47</sup> 그리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 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도 하였다.<sup>48</sup>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직접 본 증인이다.<sup>49</sup>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 내가 그 선물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하늘에서 오는 그 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 하늘로 돌아가시다

(막 16:19-20; 행 1:9-11)

50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가셨다. 그분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다.<sup>51</sup>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sup>52</sup> 제자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sup>53</sup> 그리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냈다.

¶ 24:32 성경 구약 성경.